

# 2013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 - 한국 영화산업 사상 최고의 호황, 매출 1조 8천 8백억원 기록

2014.01.23.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 I. 개 관

2013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1조 8,839억원으로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이는 극장매출의 증가 그리고 부가시장 및 해외수출의 회복세에 따른 결과이다.

2013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5,512억원으로 2012년 대비 6.6% 증가했고, 관객수 역시 2012년 대비 약 9% 증가한 2억 1,332만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sup>1)</sup>인 4.25회에 달하였다. 관객수와 매출액 모두 역대 최고이다. 한국 영화산업이 가장 침체된 해였던 2008년에 비해 총 관객수는 41.4% (1억 5,083만명 → 2억 1,332만명), 극장 총 매출은 58.4%(9,794억원→1조 5,512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나 2013년 한국영화 관객수는 2008년도 6,355만명에 비해 100.3%나 증가한 1억 2,727만명을 기록하였다.

해외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설국열차 효과’와 중국 대작영화 기술서비스 수주 덕에 완성작 수출과 기술서비스 수주액도 전년대비 각각 83.7%, 26.8% 늘어 해외수출액 전체는 2012년 대비 57.2% 증가한 5천9백만달러(약 651억원)였다. 그리고 부가시장도 IPTV 매출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24.0% 증가한 2,676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국내시장, 해외시장의 매출증가에 힘입어 한국영화 투자수익률은 2012년 13.3%에 이어 2013년에는 15.2%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영화 산업은 양적 질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영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조사기관인 스크린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아이슬랜드가 4.9회, 싱가포르 4회, 미국 3.9회, 호주 3.7회, 그리고 프랑스가 3.4회로 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표1>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2004-2013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관객수 (만명)	총관객수	13,517	14,552	15,341	15,878	15,083	15,696	14,918	15,972	19,489	21,332
	증감률	-	7.7%	5.4%	3.5%	-5.0%	4.1%	-5.0%	7.1%	22.0%	9.5%
	한국영화	8,019	8,544	9,791	7,939	6,355	7,641	6,940	8,287	11,461	12,727
	증감률	-	6.5%	14.6%	-18.9%	-20.0%	20.2%	-9.2%	19.4%	38.3%	11.0%
	점유율	59.3%	58.7%	63.8%	50.0%	42.1%	48.7%	46.5%	51.9%	58.8%	59.7%
	외국영화	5,498	6,008	5,550	7,939	8,728	8,055	7,978	7,685	8,028	8,605
	증감률	-	9.3%	-7.6%	43.0%	9.9%	-7.7%	-1.0%	-3.7%	4.5%	7.2%
	점유율	40.7%	41.3%	36.2%	50.0%	57.9%	51.3%	53.5%	48.1%	41.2%	40.3%
개봉 편수 (편)	한국영화	74	83	108	112	108	118	140	150	175	183
	외국영화	194	215	237	281	272	243	286	289	456	722
전국 스크린수 (개)		1,451	1,648	1,880	1,975	2,004	2,055	2,003	1,974	2,081	2,184
1인당 관람횟수 (회)		2.78	2.98	3.13	3.22	3.04	3.15	2.92	3.15	3.83	4.25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3.1%	7.9%	-24.5%	-40.5%	-43.5%	-13.1%	-11.0%	-14.7%	13.3%	15.2%
영화 산업 매출 (억원)	극장매출	8,498	8,981	9,257	9,918	9,794	10,941	11,684	12,358	14,551	15,512
	부가시장매출	6,536	5,433	3,900	2,750	2,224	888	1,109	1,709	2,158	2,676
	해외수출 (억원)	638	832	268	267	230	155	462	382	414	651
	(만불)*	5,828	7,599	2,451	2,440	2,104	1,412	4,222	3,487	3,782	5,946
	계	15,672	15,246	13,425	12,935	12,248	11,984	13,255	14,449	17,123	18,839

※ 해외수출액 원화 환산시 적용환율은 1USD = 1,094,7원 (2013년 평균 매매기준율 적용)

#### □ 극장관객과 매출액의 증가세 유지

2013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5,512억원으로 2012년 대비 6.6% 증가했고, 관객수 역시 2012년 대비 약 9% 증가한 2억 1,332만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한국영화가 전체 관객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3년 박스오피스 상위 10편 중 9편을 한국영화가 차지하면서, 한국영화 총 관객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억 2,727만명이었으며,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은 59.7%였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극장관객과 매출의 ‘폭발적’ 증가 때문에 2013년도에 대한 전망은 ‘현상유지’ 정도였다. 하지만 2013년도 설시즌의 <7번방의 선물> <베를린> 여름 흥행시즌 <은밀하게 위대하게> <감시자들> <설국열차> <숨바꼭질> <더 테러 라이브>, 추석시즌 <관상> 그리고 연말 <변호인> 등의 영화가 일년 내내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면서 관객을 끌어들이는 결과, 한국영화 관객수와 전체 관객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도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에 달했다.

## □ 디지털 온라인 부가시장의 성장세

2013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전년대비 24.0%가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장세의 가장 큰 동력인 IPTV 및 디지털케이블(이하 'TV VOD')은 전년대비 32.6% 증가하며 1,7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시장의 64.9%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터넷 VOD는 전년대비 18.0% 증가한 729억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장세와는 달리 패키지 상품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8.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블루레이 매출액 성장으로 인해 지난해(-22.8%)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율이 다소 둔화된 점이다. 전반적으로 부가시장에서도 극장시장의 한국영화 흥행몰이가 고스란히 반영된 모양새였다. TV VOD에서 상위 10위권에 랭크된 영화는 모두 한국영화였으며, 극장에서는 흥행에 성공한 <아이언맨 3>가 겨우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한국영화가 강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추세는 인터넷VOD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으며, 개인 관람의 행태가 빈번한 매체 특성에 의해 성인 취향의 영화들이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 □ <설국열차>가 견인한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 2012년 대비 83.7% 증가 총 3천7백만 달러 기록

2013년은 해외시장을 공략한 한국영화의 기획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이 모처럼 3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였다. 2013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은 총 3천7백만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수출액 2천만달러 대비 무려 83.7% 상승하였다. 수출액 증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작품은 <설국열차>였는데, 이 영화 한편이 나머지 한국영화 전체 수출액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권역별 수출실적을 보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수출액은 18.8%가 증가하였고 전체 완성작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6.3% 여전히 가장 높다. '설국열차 효과' 덕에 유럽, 중동, 중남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182.3%, 698.7%, 414.6% 증가하였다. 판권 유형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전체 수출액 중 전판권(All Rights) 판매액 비중이 78.7%로 2012년의 59%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가시장의 다변화로 판권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판권을 나누어 판매하기 보다는 한번에 묶어 파는 전판권 판매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2013년 기술서비스 수출액은 2012년 대비 약 71%증가한 1천 9백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중국권(중국+홍콩) 수출이 전체 금액의 75.8%를 차지하고, VFX 및 DI 서비스 수출액이 거의 대부분이다. 중국 대작 영화들의 영상 기술서비스 수주액이 2013년 기술서비스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 □ 글로벌 한국영화, 영화인 <설국열차> <이별계약> <라스트 스탠드> <스토커> <필선2>

<설국열차>는 한국 자본과 기획, 창작인력이 외국 로케이션, 업체, 배우, 외국어를 사용하여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작품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작품은 국내 흥행에서 크게 성공

하였으며, 해외 수출액은 올해 한국영화 전체 수출액의 절반을 이른다. <이별계약>은 한국의 콘텐츠를 해외 현지 시장에 맞게 변용하고 현지의 제작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지 영화로 제작하여 성공적으로 배급한 사례로서, 앞으로 아시아지역 한국 영화의 진출에 유의미한 전례로서 기능할 것이다.

<스토커>, <라스트 스탠드> 그리고 <필선2>는 할리우드와 중국이 외국의 원작, 창작인력(연출, 촬영), 배우를 활용하여 할리우드와 중국 영화를 만드는 사례들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세 작품의 경우 박찬욱, 김지운, 안병기 감독이 현지 제작사에 기용되면서 정정훈, 김지용, 최상묵 촬영감독도 동시에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계의 창작적 요소를 활용함에 있어, 원작에서 시작하여 배우, 연출/촬영까지로 확장해나가는 과정 중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 증가세 지속

2013년 개봉한 한국 상업영화<sup>2)</sup> 63편의 투자수익률은 15.2%로 2012년 13.3%보다 1.9%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제작된 <설국열차>, <이별계약> 등 해외 매출 수익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할 때 추후 수익률이 더 높게 산출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대 최대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 달성, 한국영화 수출액 급증, 디지털온라인시장 지속적 성장 등 영화산업의 긍정적인 신호 아래서 달성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투자수익률이므로, 2006부터 2011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해 오던 영화산업이 이제는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영화는 19편으로 전체 상업영화 63편 중 약 30.2%에 해당하였고, 이 중 투자수익률 100%를 상회하는 작품은 8편으로 전체의 약 12.7%를 차지하였다.

#### □ 개봉편수의 증가

개봉편수도 증가세에 있다. 2013년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총 905편으로 2012년 631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IPTV 등 부가시장이 영화유통의 또다른 주요 플랫폼으로 등장하면서, 과거 예로 비디오물이 그러하였듯 ‘극장 개봉작’ 홍보문구를 붙이고자 하는 영화들이 대거 수입, 개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의 극장개봉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 □ 15세이상관람가 한국영화 관객수 매출액 비중 증대

2013년도 한국영화 15세이상관람가 영화의 관객수의 비중은 2012년도 61.3%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전체 관객의 78.7%에 달했다. 주관객층과 표현의 수위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기획된 장르영화 흥행의 결과이다. 한편 외국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와 12세이상관람가 영화의 관객비중이 50%를 넘는다. 어린이 관객이 볼 수 있는 한국영화가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다.

2) ‘상업영화’는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조사대상인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작품)를 임의 지칭함

## □ 다양성영화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안정화 및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영화 관객수와 매출은 2009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워낭소리>가 개봉된 2009년도 이후 전체 관객수에서 다양성영화 관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 2013년도에는 1.6%(340만명)에 불과했다. 2013년도 1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다양성 영화는 <로마 워드 러브>(18만명)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14만명) <블루 재스민>(14만명) <실버라이닝 플레이북>(13만명) <마지막 4중주>(11만명) <일대종사>(10만명) 등 6편이었다.

## □ 극장, 현재 조정중

개봉작 수, 관객수, 매출액 등의 증가세에 비해 상영관수의 증가세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2013년 12월 말 전국 극장수는 333개, 상영관 수는 총 2,184개로 전년도 314개, 2,081개에 비해 각각 6.1%, 4.9%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좌석수는 2012년도 358,659개에서 2013년도 349,669로 2.5%로 감소하였다. 극장수와 상영관수는 2007년 무렵 각각 300개, 2,000개 수준에 도달하며 포화상태에 이른 이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체 극장수 대비 멀티플렉스의 비중은 81.1%로 지난해 대비 8.0%가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 체인점의 증가는 지역 극장의 폐관·휴관 또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총 4개 극장이 휴관(1건)되거나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전환(총 3건)되었다. 또한 충남과 대전의 지역극장은 폐관처리되었으며, 부천과 충북의 지역극장은 각각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지역 극장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대기업 멀티플렉스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 □ N.E.W, 신세계를 열다

N.E.W.(Next Entertainment World)는 <7번방의 선물>로 2013년 연초 극장가를 열고 <변호인>으로 연말 극장가를 닫았다. 두 작품은 모두 1천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대형 흥행작이다. 그 결과 이 회사는 한국영화 투자배급계의 오래된 1위 회사 CJ를 2위로 밀어내고 2013년 1위 회사가 되었다. 계열 극장체인도 없고 대기업 계열사도 아닌 한국영화 투자배급사의 성공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등장은 한국영화 제작자에게는 작품 제작의 기회를 더 늘렸다는 점에 있어서 반길만한 상황일 것이다.

## □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이행협약 발표

메가박스를 제외한 한국의 주요 극장체인, 투자배급사, 제작자 단체, 창작자 단체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 영화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sup>3)</sup>는 2013년 4월 7일 7개 조항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합의문>을 발표하였

3)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 2011년 10월 21일 발족되었다. 이 협의회는 투자-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 및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것

다. 법정 기구가 아니므로 그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 이 협약 및 부속합의문을 통해 그동안 제작사에게 불합리하게 고착되어 있던 정산절차, 초과비용 부담 등의 관행을 일정정도 개선하였고, 스태프 4대보험 가입,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 이행 등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과 그 부속합의문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센터’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2013년 12월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센터의 활동을 통해 합의의 이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이행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 □ CGV, 롯데시네마 서울 직영영화관 한국영화 부율 조정

CGV와 롯데시네마는 2013년 7월과 9월에 각각 외국영화에 비해 투자/제작측에 불리하게 고착되어 있는 서울지역 한국영화 부율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두 체인회사의 한국영화 부율이 기존 배급:극장=50:50에서 55:45로 변경되면서 투자제작분야로 귀속되는 매출액이 증대하게 되고 작품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늘어 제작순환 구조가 심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이전 산업 환경 하에서 고착되어 있던 거래관행이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게 변경된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반면 극장 체인업계 3위 업체인 메가박스는 기존의 한국영화 부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

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이와 함께 영화계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대·중소기업 및 노·사, 민·관 공조의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과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영화계 대기업, 창작/제작업 직능단체, 영화산업노조, 영화진흥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이 참여한 회의체이다.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는 발족 이후, 기반조성분과, 표준계약서분과, 창작·인력분과 등으로 분과를 나누어 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한 결과 2012년 7월 16일에는 13개 조항의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실무이행 TF가 구성되어 선언문 각 조항 실행에 관해 해당 회사 및 단체의 합의를 도출해내었는데, 그 결과가 2013년 4월 8일 7개 조항의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

## II. 본 론

### 1. 극장 흥행

#### 1) 관객수와 매출액<sup>4)</sup>

2013년 한해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수는 총 2억 1,332만 4,223명으로 역대 최다 관객수이다. 역시 이전 이록을 갱신하였던 2012년의 1억 9,489만 587명에 비해서도 9.5%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래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영화 관객수는 1억 2,726만 9,016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외국영화 관객수는 8,605만 5,207명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국영화 관객수 증가율은 전체 관객수 증가율보다 더 높아서, 전체 관객수 증가를 한국영화가 이끄는 현상이 201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한국영화 관객수 점유율은 59.7%로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던 <왕의 남자>와 <괴물>이 상영되었던 2006년 63.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4.25회였다. 영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조사기관인 스크린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횟수는 아이슬랜드가 4.9회, 싱가포르 4회, 미국 3.9회, 호주 3.7회, 그리고 프랑스가 3.4회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극장관람회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표2>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수,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2003-2013

년도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관객수	1인당 관람횟수
	관객수 (명)	점유율 (%)	1인당 관람횟수	관객수 (명)	점유율 (%)	1인당 관람횟수		
2003	63,913,246	53.5	1.32	55,562,063	46.5	1.15	119,475,309	2.47
2004	80,188,543	59.3	1.65	54,977,632	40.7	1.13	135,166,175	2.78
2005	85,441,539	58.7	1.75	60,082,637	41.3	1.23	145,524,176	2.98
2006	97,913,570	63.8	2.00	55,499,940	36.2	1.13	153,413,510	3.13
2007	79,393,391	50.0	1.61	79,381,483	50.0	1.61	158,774,874	3.22
2008	63,544,965	42.1	1.28	87,285,714	57.9	1.76	150,830,679	3.04
2009	76,406,156	48.7	1.54	80,554,110	51.3	1.62	156,960,266	3.15
2010	69,397,733	46.5	1.37	79,784,275	53.5	1.58	149,182,008	2.95
2011	82,868,294	51.9	1.63	76,856,171	48.1	1.52	159,724,465	3.15

4) 본 결산보고서 극장관객수 및 매출액 통계 중 <표1>, <표2> <표3> <표4>와 <그림1>에 기재된 관객수, 매출액은 개봉상영 영화에 더해 재개봉, 기획전상영, 영화제상영의 관객수와 매출액을 포함한 수치이다. 2013년 총 관객수(213,324,223명), 총 매출액(1조 5,511억 6,472만 2,221원), 한국영화점유율(59.7%) 등은 본 수치에서 인용되었다. 나머지 작품별, 배급사별, 월별, 세부국적별로 구분된 통계수치와 통계표는 모두 재개봉, 기획전상영, 영화제상영의 관객수와 매출액을 제외하고 개봉상영 영화의 상영실적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양자간 수치에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년도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관객수	1인당 관람횟수
	관객수 (명)	점유율 (%)	1인당 관람횟수	관객수 (명)	점유율 (%)	1인당 관람횟수		
2012	114,612,866	58.8	2.25	80,277,721	41.2	1.58	194,890,587	3.83
2013	127,269,016	59.7	2.53	86,055,207	40.3	1.71	213,324,223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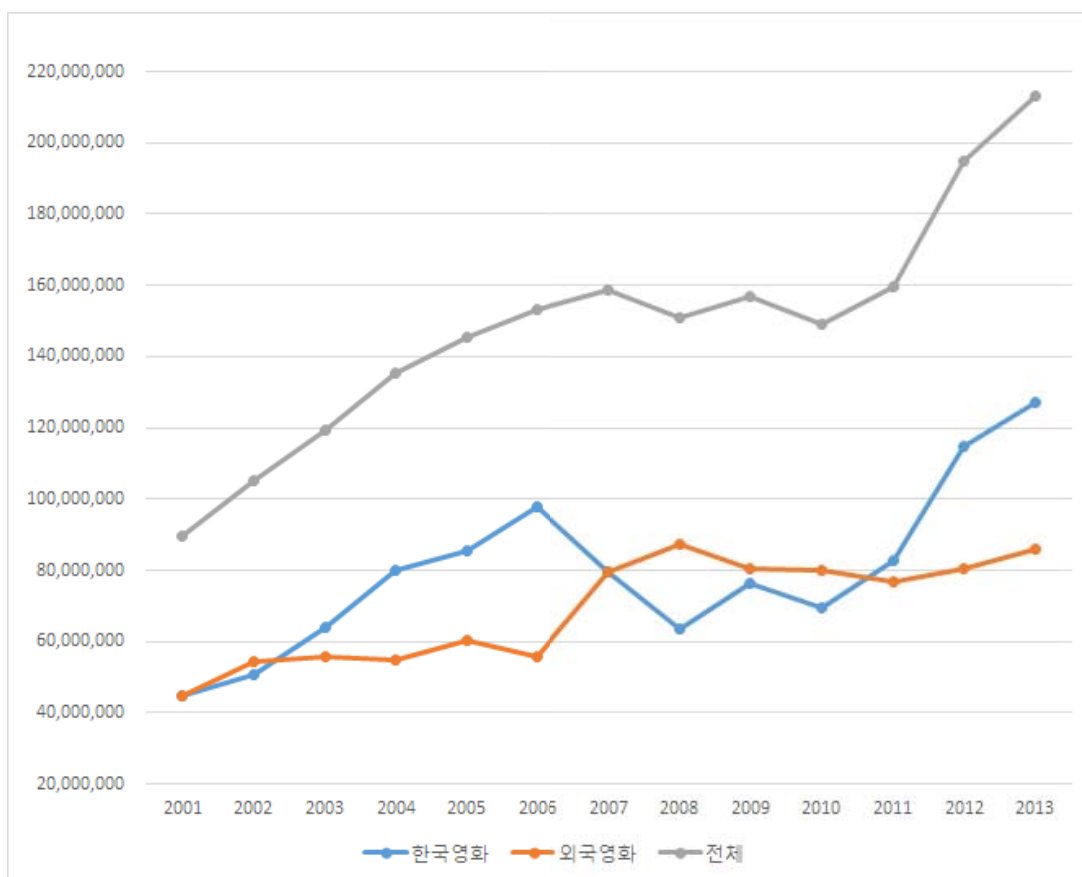
한국영화 제작투자업계는 봉준호 감독의 역대 박스오피스 2위 작품 <괴물>이 1천 3백여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63.8%(한국영화 총 관객수 9,800만명)를 기록하였던 2006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07년부터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이후 2011년까지 한국영화 관객수는 6천만명대에서 8천만명대 수준에 머물렀고, 외국영화를 합친 전체 관객수도 1억 5천만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는 감소추세에 있었고, 투자수익률도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침체의 상황에 회복의 조짐이 보였던 것은 2011년도였다. 이 해 <최종병기 활> <씨니> <완득이> 등의 작품이 5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 점유율도 다시 50%를 넘어섰고, 전체 관객수도 1억 6천만명에 육박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한국영화 관객수가 전년 대비 38% 늘어난 1억 1,400만명, 전체 관객수는 약 1억 9,500만명에 이르렀고, 2007년 이래 적자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국영화 제작투자 수익률도 이 해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영화 제작투자업계는 불황의 그늘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7년-2011년 침체기는 한국영화계에 암울한 그림자만 던진 것은 아니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영화 제작투자업계 내에서는 치밀한 기획이 효율적 제작관리 시스템을 통해 영화로 완성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영화 대중의 사회, 문화적 기호가 잘 반영된 작품이 합리적 예산으로 제작되어 극장관객과 만나게 됨으로써, 2012년도부터 한국영화 산업계는 성장의 가도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1> 한국영화vs외국영화 극장 관객수 추이(2001-2013)



전체 관객수가 늘어난 데에는 극장의 역할도 컸다. 2000년대 이후 확산된 멀티플렉스는 관객의 극장접근도와 티켓 구입편의성을 높여 관객들이 보다 쉽게 상영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최근 극장포화상태에 이르자,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들은 황금시간대 입장권 가격은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 가격은 낮추는 시간대별 가격차별화 정책을 시행했고 이와 동시에 사이트별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하여왔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동안 관객 1인당 단가는 소폭 하락하였지만, 극장의 평균 좌석점유율과 함께 전체 관객수는 증가했다.

<표3> 2013년 전국 지역별 관객수, 매출액, 1인당 관람횟수

광역시도	관객수(명)	관객 점유율	극장매출(원)	매출 점유율	평균관람료(원)	인구수(명)	1인당 관람횟수(회)
서울시	60,089,222	28.2%	460,370,349,904	29.7%	7,661	9,991,064	6.01
경기도	46,668,034	21.9%	338,338,179,000	21.8%	7,250	12,080,585	3.86
부산시	17,208,407	8.1%	122,315,533,600	7.9%	7,108	3,430,473	5.02
대구시	12,719,708	6.0%	89,275,773,500	5.8%	7,019	2,471,357	5.15
경상남도	11,107,326	5.2%	77,115,571,900	5.0%	6,943	3,263,050	3.40
인천시	10,610,359	5.0%	78,009,550,287	5.0%	7,352	2,816,025	3.77
광주시	8,323,312	3.9%	57,499,025,500	3.7%	6,908	1,518,006	5.48
대전시	8,024,499	3.8%	57,343,638,000	3.7%	7,146	1,546,251	5.19

광역시도	관객수(명)	관객 점유율	극장매출(원)	매출 점유율	평균관람료(원)	인구수(명)	1인당 관람횟수(회)
충남+세종	6,317,504	3.0%	44,788,292,500	2.9%	7,090	2,147,980	2.94
경상북도	6,308,887	3.0%	44,372,377,000	2.9%	7,033	2,642,329	2.39
전라북도	6,105,187	2.9%	42,122,475,000	2.7%	6,899	1,803,230	3.39
충청북도	5,369,229	2.5%	36,781,479,500	2.4%	6,850	1,561,471	3.44
강원도	4,791,155	2.2%	33,932,676,530	2.2%	7,082	1,504,986	3.18
울산시	4,215,968	2.0%	31,170,904,000	2.0%	7,394	1,120,444	3.76
전라남도	3,625,129	1.7%	24,644,742,000	1.6%	6,798	1,762,178	2.06
제주도	1,840,297	0.9%	13,084,154,000	0.8%	7,110	560,240	3.28
합계	213,324,223	100%	1,551,164,722,221	100%	7,271	50,219,669	4.25

전국 16개 광역단체별 연간 극장관객수를 보면 서울지역 관객수가 전국 관객수의 28.2%인 6,009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경기도가 4,667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광역시가 1,721만명의 관객수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한편 광역단체별 인구 1인당 관람횟수도 서울특별시가 6.01회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가 5.48회를 기록하며 2011년부터 3년 연속 1인당 관람횟수 2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대전, 대구, 부산 순으로 1인당 관람횟수가 높았다. 이들 도시의 1인당 관람횟수는 5회 이상이었는데, 멀티플렉스가 밀집한 대도시 시민의 영화관람이 보다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에도 유사했다.

#### <표4> 연도별 평균 관람요금 2003-2013

년도	관객 수(만 명)	매출(억 원)	평균 관람료(원)
2003	11,948	7,171	6,002
2004	13,517	8,498	6,287
2005	14,552	8,981	6,172
2006	15,341	9,256	6,034
2007	15,877	9,918	6,247
2008	15,083	9,794	6,494
2009	15,696	10,940	6,970
2010	14,681	11,514	7,834
2011	15,972	12,362	7,737
2012	19,489	14,551	7,466
2013	21,332	15,512	7,271

2013년 관객수는 2012년 대비 9.5% 증가한 반면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그보다 적은 6.6%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평균 관람요금은 7,271원으로 2012년 대비 2.6% 하락하였다. ‘관객수의 증대

- 관객수보다 증가율이 적은 매출액 증대 - 평균 관람요금의 하락'의 현상은 2010년부터 2012년 도까지의 경향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아바타>를 필두로 급격히 늘어난 3D영화 관객 수의 지속적 감소, 극장경쟁 심화로 인한 극장 싸이트간 할인프로모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2) 월별 흥행추이

한국 극장가의 황금시절은 설연휴시즌 (1월 또는 2월), 여름시즌(7월-8월), 추석연휴시즌(9월 또는 10월), 연말시즌 등 네가지가 있다. 이 중 전통적으로 설연휴와 추석연휴에는 특히 한국영화 관객 수가 많다. 그리고 여름시즌과 연말시즌은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가 관객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기간인데, 보통 이 두 개의 시즌에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는 해에 연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높아짐은 물론 전체 관객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였던 2007년-2010년까지는 설연휴와 추석연휴시즌은 한국영화가 우세했고, 여름시즌과 연말시즌에는 외국영화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 2012년은 여름시즌과 연말시즌에 한국영화 관객수와 외국영화 관객수가 백중세를 보였고, 2013년도에는 모든 시즌에서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보다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다.

2013년도 박스오피스 TOP 10 영화 중 <7번방의 선물>, <베를린>은 설연휴 시즌에, <관상>은 추석연휴 시즌, <설국열차>, <숨바꼭질>, <더 테러 라이브>, <감시자들>은 여름시즌, <변호인>은 연말시즌 등 전통적 성수기에 상영된 영화이다. 반면 <아이언맨 3>과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비수기에 속하는 4월과 6월에 각각 개봉한 영화이다

<표5> 2013년 월별, 분기별, 반기별 한국영화vs외국영화 점유율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한국영화 관객수	11,987,361	18,086,062	8,373,657	4,467,059	4,328,255	8,247,054	8,499,714	21,942,994	12,785,922	9,286,807	7,327,195	11,776,467	127,108,547
월별 점유율	59.0%	83.5%	63.2%	39.9%	30.7%	47.2%	45.3%	75.5%	66.7%	69.2%	55.2%	56.9%	59.9%
분기별 점유율	69.6%			39.9%			64.5%			59.9%			
반기별 점유율	56.7%						62.6%						
외국영화 관객수	8,319,854	3,570,603	4,865,458	6,725,272	9,756,235	9,223,267	10,248,207	7,124,497	6,385,923	4,128,547	5,949,436	8,924,645	85,221,944
월별 점유율	41.0%	16.5%	36.8%	60.1%	69.3%	52.8%	54.7%	24.5%	33.3%	30.8%	44.8%	43.1%	40.1%
분기별 점유율	30.4%			60.1%			35.5%			40.1%			
반기별 점유율	43.3%						37.4%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전체	20,307,215	21,656,665	13,239,115	11,192,331	14,084,490	17,470,321	18,747,921	29,067,491	19,171,845	13,415,354	13,276,631	20,701,112	212,330,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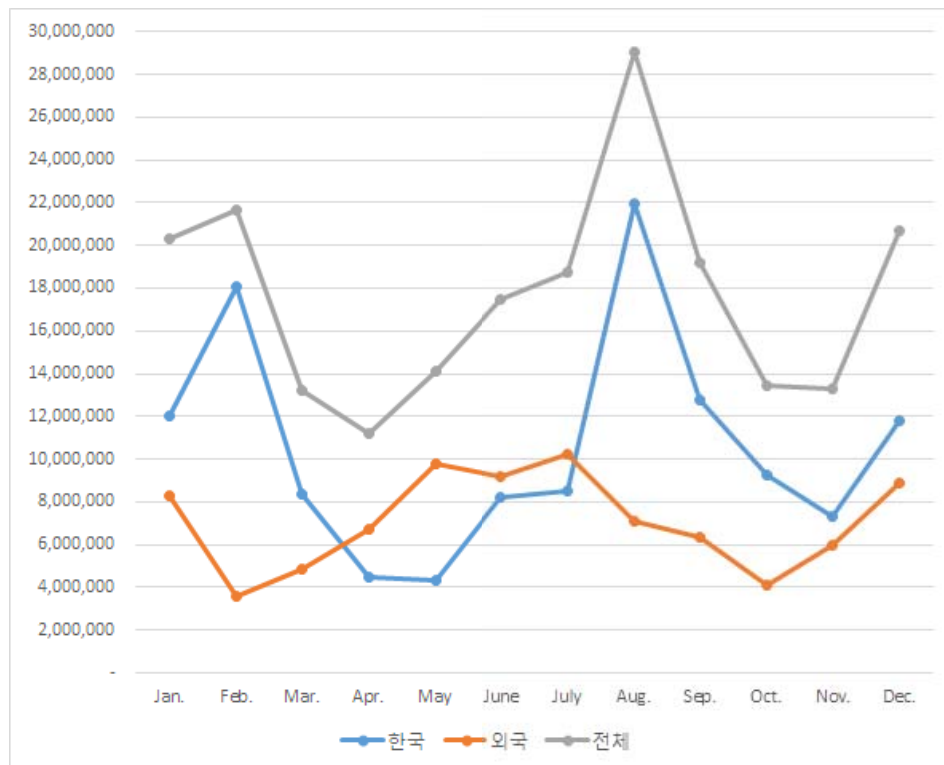
2013년 초에는 2012년 12월 개봉작이었던 <레미제라블>, <타워>가 2013년 1월에만 270만명과 317만명을 각각 동원하며 흥행세를 이어갔다. 그리고 1월 1일 새해 벽두를 열었던 리안 감독의 3D 영화 <라이프 오프 파이>와 한국영화 <박수건달>이 설연휴 작품 개봉전까지 극장 흥행가를 주도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159만명과 389만명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다.

2013년 설연휴시즌 관객을 놓고 경쟁을 벌인 주요 작품은 한국영화인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 그리고 할리우드 작품인 <다이하드: 굿 데이 투 다이> 등 세 편의 작품이었다. <7번방의 선물>은 설연휴시즌 시작 2주 전인 1월 23일 개봉되어 설연휴를 지나 약 한달 반 동안 극장에 걸리면서 1,281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2013년 최다 관객 동원 작품이 되었다. <베를린>은 <7번방의 선물>보다 1주일 뒤인 1월 30일 개봉하여 설연휴 기간동안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면서 717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2013년 박스오피스 순위 5위의 작품이 되었고, 류승완 감독의 작품 중에는 최고 관객 동원작이다. 한편 설연휴 시즌 유일한 할리우드 작품이었던 <다이하드: 굿 데이 투 다이>은 관객수는 144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쳤다.

<표6> 2013 월별 국적별 관객수

년월	한국				외국				전체		
	개봉 편수	관객수	점유율	월비중	개봉 편수	관객수	점유율	월비중	개봉 편수	관객수	월비중
2013-01	12	11,987,361	59.0%	9.4%	54	8,319,854	41.0%	9.8%	66	20,307,215	7.3%
2013-02	11	18,086,062	83.5%	14.2%	45	3,570,603	16.5%	4.2%	56	21,656,665	6.2%
2013-03	13	8,373,657	63.2%	6.6%	56	4,865,458	36.8%	5.7%	69	13,239,115	7.6%
2013-04	9	4,467,059	39.9%	3.5%	43	6,725,272	60.1%	7.9%	52	11,192,331	5.7%
2013-05	13	4,328,255	30.7%	3.4%	62	9,756,235	69.3%	11.4%	75	14,084,490	8.3%
2013-06	11	8,247,054	47.2%	6.5%	65	9,223,267	52.8%	10.8%	76	17,470,321	8.4%
2013-07	13	8,499,714	45.3%	6.7%	67	10,248,207	54.7%	12.0%	80	18,747,921	8.8%
2013-08	22	21,942,994	75.5%	17.3%	78	7,124,497	24.5%	8.4%	100	29,067,491	11.0%
2013-09	12	12,785,922	66.7%	10.1%	53	6,385,923	33.3%	7.5%	65	19,171,845	7.2%
2013-10	27	9,286,807	69.2%	7.3%	61	4,128,547	30.8%	4.8%	88	13,415,354	9.7%
2013-11	25	7,327,195	55.2%	5.8%	69	5,949,436	44.8%	7.0%	94	13,276,631	10.4%
2013-12	15	11,776,467	56.9%	9.3%	69	8,924,645	43.1%	10.5%	84	20,701,112	9.3%
합계	183	127,108,547	59.9%	100%	722	85,221,944	40.1%	100%	905	212,330,491	100%

<그림 2> 2013년 월별 국적별 관객 수



연간 비수기에 속하는 3월-6월에는 보통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영화보다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한다. 2013년 이 시기 최대 흥행작은 4월25일 개봉한 <아이언맨 3>으로 9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2013년 외국영화 관객동원 1위, 한국영화까지를 포함한 박스오피스에서는 4위를 차지하였다. <아이언 맨 3>의 관객수는 역대 외국영화 흥행순위에서도 <아바타>5)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기록이다. 소니픽처스릴리징월트디즈니는 4월~5월 가족의 달을 겨냥한 2012년 <어벤저스> (708만명)로 큰 성공을 거둔 뒤, 2013년에는 <아이언맨 3>으로 잭팟을 터뜨렸다.

비록 3월-6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이고, 2013년에도 다른 시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객수가 적긴 했지만, 2013년의 경우 이 기간 관객수의 절대 수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다. 이 시기 개봉되었던 한국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696만명, 6.5 개봉), <신세계>(468만명, 2.21 개봉), <몽타쥬>(210만명, 5.16 개봉)가 눈에 띄는 선전을 했고, <월드 워 Z>(524만명, 6.20 개봉), <맨 오브 스틸>(218만명, 6.13 개봉) 등의 할리우드 영화도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한국영화 <감시자들>(7.3 개봉)이 포문을 연 2013년도 여름시즌 전쟁터는 한국영화의 압도적 승

5) 2009년 개봉한 <아바타> (1,362만명)는 한국영화, 외국영화 총괄 흥행순위에서도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역대 흥행순위 2위부터 5위는 <괴물> (1,301만명, 2006년) <도둑들> (1,298만명, 2012년) <7번방의 선물> (1,281만명, 2013년) <광해, 왕이 된 남자> (1,232천명, 2012년)이 차지하고 있다. 1,200만명 이상의 작품들이 최근들어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으므로, <아바타>는 어쩌면 곧 다른 작품에 역대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물려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흥행순위를 매길 때 매출액이 아닌 관객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바타>는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3D 상영이 많았기 때문에, 입장권 매출액을 기준으로 흥행순위를 매긴다면 앞으로 <아바타>는 흥행매출순위 1위의 자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로 끝났다. 특히나 8월 한달 동안 극장가를 찾은 관객수가 3천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전체 관객수가 유례없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 상영된 한국영화 <감시자들>(551만명), <더 테러 라이브>(558만명, 7.31 개봉), <설국열차>(934만명, 8.1 개봉), <숨바꼭질>(560만명, 8.14 개봉), <감기>(312만명, 8.14 개봉)는 모두 3백만명 이상의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

반면 허영만 화백의 동명 출판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3D영화로 제작된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는 7월 17일 개봉하였으나 133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쳤다. 300억 규모의 자본이 투입된 이 작품은 국내 극장 흥행에서 손익분기점에 크게 못미쳤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해 VFX기술을 이용한 가상캐릭터의 영상화, 3D 영화 촬영기술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한국영화의 기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큰 작품이다.

한편 여름시즌 외국영화는 <퍼시픽 림>(254만명, 7.11개봉), <레드: 더 레전드>(300만명, 7.18개봉) 등 2편만이 2백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게다가 <레드: 더 레전드>는 롯데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영화임을 고려하면, 아마도 여름시즌 흥행전에서 할리우드 배급사가 이처럼 맥을 못춘 해는 드물 것이다. 2012년도에는 워너브라더스의 <다크나이트 라이즈>(640만명, 2012.07.19.개봉),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485만명, 2012.6.28 개봉) 등의 할리우드 배급사 영화가 여름시장에서 선전한 바 있다.

2013년 추석시즌 흥행영화는 한국영화인 <스파이>(344만명, 9.5 개봉), <관상>(913만명, 9.11 개봉)이었다. 외국영화로는 워너브러더스가 배급한 미국 공포물 <컨저링>(226만명, 9.17 개봉)이 추석시즌 깜짝 흥행의 성과를 거두었다. 불쾌한 사운드도, 공포스러운 비주얼도, 흥건한 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가장 무서운 영화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외의 흥행성적을 올렸다.

연말시즌이 도래하기 전, 10월 11월 극장가의 환영을 받은 한국작품은 중견 감독들의 신작이었다. 이준익 감독의 신작인 <소원>이 10월 2일 개봉되어 271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장준환 감독의 신작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가 10월 9일 상영을 시작하여 총 239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외화중에는 2013년 제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3D 영화 <그래비티>가 10월 17일 개봉하여 313만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10월 30일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토르: 다크월드>는 304만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이 기간 흥행작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연말흥행가도 <변호인> <용의자> 등의 한국영화가 주도하였다. <변호인>은 2013년 12월 18일 개봉하여 2014년까지 계속 상영되면서 2014년 1월 19일까지 1,016만명의 관객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을 맡은 배우 송강호가 출연한 2013년 개봉작은 <설국열차> <관상> <변호인> 등 세 편으로, 이 작품들은 모두 각각 9백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흥행성공작이 되었다. <용의자>는 원신연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로, 그의 전작 <세븐 데이즈>(212만명, 2007

년)이후 6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2013.12.24. 개봉한 <용의자>는 해를 넘어서까지 상영되고 있고 2014.1.19.까지의 관객수는 406만명이다. 연말시즌 외화 중에서는 12월 5일 개봉한 <어바웃 타임>이 2014년 1월에도 계속 상영되면서 현재까지 3백만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 3) 흥행영화

2013년은 한국영화가 시장을 주도한 해였다. 그 결과 흥행 상위 10위권 내 한국영화는 무려 9편이나 되었다. 상위 10편 중 7편이 한국영화였던 2012년도에 비해서도 한국영화 집중도가 높아졌다. <7번방의 선물>부터 <설국열차>, <관상>, <베를린>, <은밀하게 위대하게>, <변호인>, <숨바꼭질>, <더 테러 라이브>, <감시자들> 까지 흥행에서 수위를 차지한 한국영화들의 목록은 휴먼 코미디 드라마, 사회 액션물, 사극, 현대사 드라마,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포섭하고 있다. 이처럼 기획력, 효율적 제작관리, 연출력에 기반한 장르적 다양성은 최근 지속적 한국영화 관객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표7> 2013년 전체영화 박스오피스 TOP 20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국적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관객수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2013-01-23	15세	한국	787	91,429,295,670	12,810,776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2	설국열차	2013-08-01	15세	한국	1,128	66,951,128,500	9,341,747	씨제이이엔엠(주)
3	관상	2013-09-11	15세	한국	1,190	66,004,775,500	9,134,463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4	아이언맨 3	2013-04-25	12세	미국	1,381	70,806,191,000	9,001,309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 스튜디오스코리아(주)
5	베를린	2013-01-30	15세	한국	894	52,354,771,637	7,166,177	씨제이이엔엠(주)
6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3-06-05	15세	한국	1,341	48,735,214,913	6,963,821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7	변호인	2013-12-18	15세	한국	923	40,952,697,500	5,686,919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8	숨바꼭질	2013-08-14	15세	한국	779	39,602,987,500	5,604,10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9	더 테러 라이브	2013-07-31	15세	한국	743	39,834,696,881	5,579,125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10	감시자들	2013-07-03	15세	한국	949	39,371,354,179	5,506,770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11	월드 워 Z	2013-06-20	15세	미국	964	38,554,957,000	5,237,519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12	신세계	2013-02-21	청불	한국	671	34,880,882,905	4,682,418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 EW)
13	박수건달	2013-01-09	15세	한국	599	28,343,986,569	3,893,216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14	스파이	2013-09-05	15세	한국	785	24,508,067,305	3,435,596	씨제이이엔엠(주)
15	그래비티	2013-10-17	12세	미국	636	31,214,085,600	3,194,698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16	타워	2012-12-25	12세	한국	617	22,996,601,500	3,166,425	씨제이이엔엠(주)
17	감기	2013-08-14	15세	한국	806	21,783,151,000	3,118,847	아이러브시네마
18	토르: 다크 월드	2013-10-30	12세	미국	733	22,525,597,500	3,039,860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 스튜디오스코리아(주)
19	레드: 더 레전드	2013-07-18	15세	미국	738	21,491,288,970	3,001,842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	친구 2	2013-11-14	청불	한국	968	21,795,038,513	2,969,874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확장판 관객수 4,738명 포함. <타워>는 2012년 관객수 2,104,589명 포함하면 이 작품의 총 관객수는 5,271,014명임

한편 2013년 전체 외국영화 관객수도 전년도에 비해 7.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 흥행세가 워낙 강했던 탓에 흥행상위 10위 안에는 <아이언맨 3>(900만명) 한편만이 유일하게 4위로 올랐다. 흥행 상위 20위로 확대해 보아도 <아이언맨 3>을 비롯, <월드 워 Z> (524만명), <그래비티> (319만명) <토르: 다크월드>(304만명) <레드: 더 레전드>(300만명) 등 5편에 불과하다.

<표8> 2013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TOP 10

순위	영화명	감독	개봉	등급	전국 스크린수	전국매출액	전국관객수	제작사	배급사
1	7번방의 선물	이환경	2013-01-23	15세	787	91,429,295,670	12,810,776	(주)화인웍스, (주)씨엘엔터테인먼트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	설국열차	봉준호	2013-08-01	15세	1,128	66,951,128,500	9,341,747	(주)모호필름, 오피스픽처스(유)	씨제이이엔엠(주)
3	관상	한재림	2013-09-11	15세	1,190	66,004,775,500	9,134,463	(주)주피터필름, 쇼박스 (주)미디어플렉스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4	베를린	류승완	2013-01-30	15세	894	52,354,771,637	7,166,177	(주)외유내강, 씨제이이엔엠 (주)	씨제이이엔엠(주)
5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2013-06-05	15세	1,341	48,735,214,913	6,963,821	(주)엠씨엠씨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6	변호인*	양우석	2013-12-18	15세	923	40,952,697,500	5,686,919	위더스필름(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7	숨바꼭질	허정	2013-08-14	15세	779	39,602,987,500	5,604,104	(주)드림캐쳐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8	더 테러 라이브	김병우	2013-07-31	15세	743	39,834,696,881	5,579,125	(주)씨네이천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9	감시자들	조익성, 김병서	2013-07-03	15세	949	39,371,354,179	5,506,770	영화사 집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0	신세계	박훈정	2013-02-21	청불	671	34,880,882,905	4,682,418	(주)사나이픽처스, 페퍼민트엔컴퍼니, (주) 기안결터엔터테인먼트 (주)파트너스케이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확장판 관객수 4,738명 포함. <변호인>은 2014.1.19. 현재 계속 상영중

<표9> 2013년 외국영화 박스오피스 TOP 10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 (백만명)	관객수	국적	스크린수	배급사
1	아이언맨 3	2013-04-25	70,806	9,001,309	미국	1,381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 튜디오스코리아(주)
2	월드 워 Z	2013-06-20	38,555	5,237,519	미국	964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3	그래비티	2013-10-17	31,214	3,194,698	미국	636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4	토르: 다크 월드	2013-10-30	22,526	3,039,860	미국	733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 튜디오스코리아(주)
5	레드: 더 레전드	2013-07-18	21,491	3,001,842	미국	738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6	어바웃 타임	2013-12-05	20,912	2,856,346	영국	568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7	나우 유 씨 미 : 마술사기단	2013-08-22	19,146	2,718,153	미국	691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8	레미제라블	2012-12-19	19,616	2,701,783	미국	696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9	퍼시픽 림	2013-07-11	20,476	2,538,963	미국	1,005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 (백만명)	관객수	국적	스크린수	배급사
10	컨저링	2013-09-17	16,353	2,262,718	미국	553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 <레미제라블>은 2012년 관객 3,210,107명 포함하면 총 5,911,890명 관객 동원. <어바웃 타임>은 2014년 1월 관객 불포함

#### 4) 3D 영화

2013년 3D 영화는 개봉편수가 50편으로 2012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고 3D 상영을 찾은 관객수 및 입장권 매출액도 크게 줄었다. 개봉영화 3D 상영의 관객수 매출액 비중은 총 관객수 1,362만 명 중 3D 상영 관객수만 453만명을 넘었던 <아바타>를 필두로 <드래곤 길들이기> <슈렉 포에버> <토이 스토리 3> 등의 영화가 3D 상영을 통해 각각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던 2010년도에 크게 증가 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0> 3D 상영 관객수 및 매출액 비중 변화 2009-2013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개봉편수	361	426	439	631	905
3D영화 개봉편수(편)	11	33	48	62	50
총극장관객수 (명)	156,960,266	149,182,008	159,724,465	194,890,587	213,324,223
3D영화의 3D상영관객수(명)	1,943,551	16,944,377	15,378,742	10,684,602	7,365,891
3D영화의 3D상영관객비중	1.2%	11.4%	9.6%	5.5%	3.5%
총극장매출액 (원)	1,094,081,091,868	1,168,418,291,465	1,235,799,464,200	1,455,140,354,435	1,551,164,722,221
3D영화의 3D상영매출액(원)	21,431,232,500	191,347,425,000	175,681,966,100	121,420,070,488	89,236,254,100
3D영화의 3D극장매출액비중	2%	16.4%	14.2%	8.3%	5.8%

2013년도 3D 상영 관객수 및 매출액 1위는 <그래비티>로 2D 상영 포함 총 관객수 319만명 중 151만명의 관객이 3D 상영 관객수였으며, 이 영화의 전체 입장권 매출액 중 3D 상영 입장권 매출의 비중은 62%였다. 그 뒤를 이어 <아이언맨 3>의 3D 관객수는 전체 관객의 15.9%인 143만 명이었고, <라이프 오브 파이>는 전체 관객 159만명의 53.6%에 해당하는 85만명이 3D 상영을 관람하며 3D 관객수 3위에 올랐다. 한국영화로는 <미스터 고>가 전체 관객 133만명 중 7.7%인 9만 7천명의 3D 관객을 모아 가장 많은 3D관객을 모았다.

3D 영화가 한국 관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객들은 3D로 보아야 할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를 구분하여 작품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3D 상영 관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첨단 기술은 영화 작품 속에 보이지 않게 효과적으로 녹아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산업적 의미를 가진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표11> 2013년 3D 상영 흥행순위 10

순위	영화명	개봉일자	배급사	3D상영 총관객수	총관객수 중 3D상영 비중	3D 상영 총 매출액	총매출액 중 3D상영 매출액비중	총 관객수	총 매출액
1	그래비티	20131017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1,505,394	47.1%	19,363,299,100	62.0%	3,194,698	31,214,085,600
2	아이언맨 3	20130425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 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1,434,398	15.9%	17,202,360,000	24.3%	9,001,309	70,806,191,000
3	라이프 오브 파이	20130101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851,428	53.6%	10,523,872,000	66.6%	1,588,373	15,812,506,500
4	퍼시픽 림	20130711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436,508	17.2%	5,589,833,000	27.3%	2,538,963	20,476,314,512
5	호빗: 스마우그의 폐허	20131212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367,795	17.4%	4,516,846,000	27.3%	2,116,437	16,570,524,549
6	맨 오브 스틸	20130613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262,535	12.0%	3,413,505,500	20.0%	2,182,227	17,092,964,063
7	토르: 다크 월드	20131030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 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228,301	7.5%	2,857,258,500	12.7%	3,039,860	22,525,597,500
8	지.아이.조 2	20130328	씨제이이엔엠(주)	226,775	12.2%	2,793,446,500	19.3%	1,855,917	14,457,048,500
9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3D	20131219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203,814	40.2%	2,107,715,000	50.9%	507,158	4,140,874,000
10	몬스터 호텔	20130117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 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110,684	12.5%	1,099,535,500	18.1%	884,885	6,080,221,500

## 5) 관람 등급별 영화 관객

한국영화 제작편수, 외국영화 수입편수는 증가세에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작품수에서 추출한 2013년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는 각각 207편, 846편으로 2012년에 비해 한국영화는 3편, 외국영화는 125편 증가하였다.

제작편수, 수입편수의 증가와 함께 개봉작품의 수도 늘고 있다. 2013년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는 총 905편으로 2012년 631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IPTV 등 부가시장이 영화유통의 또다른 주요 플랫폼으로 등장하면서, 과거 에로 비디오물이 그러하였듯 ‘극장 개봉작’ 홍보문구를 붙이고자 하는 영화들이 대거 수입, 개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들의 극장개봉의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

2013년도 한국영화 흥행 10위 영화 중 9편이 15세이상관람가 등급 영화였다. 그 결과 한국영화 관객 중 15세이상관람가 영화의 관객수는 78.7%에 달했다. 반면 전체관람가 한국영화 관객은 전체 한국영화 관객의 1.3%, 그리고 12세이상관람가 등급 영화의 관객수는 7.0%에 불과했다. 2012년도에 비해서 15세이상관람가 영화 관객수는 큰 폭으로 늘었고 반대로 전체관람가와 12세이상관람가 등급 영화 관객수는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등급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18.7%, 12세이상관람가 39.8%, 15세이상관람가 영화 35.2% 등 전체관람가와 12세이상관람가 영화의 관객비중이 50%를 넘는다. 이는 한국 극장가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나섰을 때 볼 수 있는 영화가 외국영화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관객들이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는 영화가 자국영화가 아닌 외국영화라는 점에서 한국영화의 미래관객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고 2013년도에는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표12> 2013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

등급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전체관람가	28	118	146
12세이상관람가	25	91	116
15세이상관람가	55	233	288
청소년관람불가	94	398	492
제한상영가	5	6	11
계	207	846	1,053

※ 상기 등급별 제작, 수입 편수는 2013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완료 작품 중 40분 이상 작품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내용 등의 수정으로 인한 재심과 3D판, 더빙판에 대한 등급분류 수치는 제외하였음

<표13> 2013년 한국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수	관객수 점유율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24	13.1%	1,649,710	1.3%	11,782,560,328	1.3%
12세이상관람가	20	10.9%	8,866,799	7.0%	62,211,202,500	6.8%
15세이상관람가	57	31.1%	100,011,411	78.7%	713,094,453,175	78.4%
청소년관람불가	82	44.8%	16,580,627	13.0%	122,117,533,867	13.4%
계	183	100.0%	127,108,547	100.0%	909,205,749,870	100.0%

<표14> 2013년 외국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수	관객수 점유율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119	16.5%	15,952,256	18.7%	114,144,934,843	17.9%
12세이상관람가	73	10.1%	33,909,629	39.8%	265,125,567,667	41.7%
15세이상관람가	205	28.4%	29,995,900	35.2%	218,371,160,132	34.3%
청소년관람불가	325	45.0%	5,364,159	6.3%	38,760,688,198	6.1%
계	722	100.0%	85,221,944	100.0%	636,402,350,840	100.0%

<표15> 2013년 전체영화 상영등급별 편수, 관객수, 매출액

등급	개봉편수	개봉편수 비율	관객수	관객수 점유율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전체관람가	143	15.8%	17,601,966	8.3%	125,927,495,171	8.1%
12세이상관람가	93	10.3%	42,776,428	20.1%	327,336,770,167	21.2%
15세이상관람가	262	29.0%	130,007,311	61.2%	931,465,613,307	60.3%
청소년관람불가	407	45.0%	21,944,786	10.3%	160,878,222,065	10.4%
계	905	100.0%	212,330,491	100.0%	1,545,608,100,710	100.0%

#### 6) 국적별 관객 점유율 : 60%에 달하는 한국영화 점유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도 극장가도 한국영화가 주도하였다. 설 연휴, 여름시즌, 추석시즌, 연말시즌에 모두 한국영화 관객수가 많았다. 그 결과 재개봉 및 영화제 등 기타상영을 제외한 개봉상영작의 한국영화 관객점유율은 59.9%였다. 그리고 미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35.5%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영화의 관객점유율은 4.6%, 관객수 9,93만명에 불과하다. 2012년 6.4%에 비해서 감소한 수치이며, 관객수 기준으로 2012년 1,294만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한국, 미국을 제외한 기타국적 영화 중 최다 관객 동원작은 2013년도 말까지 286만명의 관객 (2014년 1월 19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336만명)을 동원한 영국영화 <어바웃 타임>이었다. 그리고 나오미 왓츠와 이완 맥그리거가 출연한 스페인영화 <더 임파서블>이 62만명을 모으면서 그 뒤를 이었다. 중국영화로서는 청룽 연출의 <차이니즈 조디악>(32만명), 일본영화로는 아동용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인 <명탐정 코난 : 수평선상의 음모>(39만명)가 어느 정도의 흥행성과를 보였다.

2013년도에도 여전히 관객들은 큰 영화, 흥행작, 화제작에 몰리고 그에 따라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에 관객이 편중되는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표16> 국적별 점유율 2013

국적		구분	작품수	전국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한국		상영작	217	909,206	58.8%	127,108,547	59.9%
		개봉작	183	879,129	59.1%	122,969,421	60.2%
미국	USA 직배	상영작	50	381,986	24.7%	49,599,370	23.4%
		개봉작	46	358,533	24.1%	46,381,381	22.7%
	USA 수입	상영작	229	186,276	12.1%	25,696,169	12.1%
		개봉작	219	185,912	12.5%	25,646,286	12.5%
	소계	상영작	279	568,262	36.8%	75,295,539	35.5%
		개봉작	265	544,445	36.6%	72,027,667	35.2%

국적	구분	작품수	전국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중국	상영작	56	4,410	0.3%	675,799	0.3%
	개봉작	54	4,405	0.3%	675,032	0.3%
유럽	상영작	219	45,629	2.9%	6,507,117	3.1%
	개봉작	188	43,764	3.1%	6,251,856	3.1%
일본	상영작	178	11,843	0.8%	1,796,488	0.8%
	개봉작	171	11,636	0.8%	1,758,011	0.9%
기타	상영작	48	6,259	0.3%	947,001	0.4%
	개봉작	44	4,664	0.2%	712,796	0.3%
총계	상영작	997	1,545,608	100%	212,330,491	100%
	개봉작	905	1,488,043	100%	204,394,783	100%

## 7) 배급사별 관객수 : CJ E&M 11년째 1위, 새로운 한국영화 투자배급사 강자 N.E.W

CJ E&M은 2013년에도 배급사 전체(한국영화+외국영화) 관객점유율 1위자리를 지켰다. 2003년 이래 11년동안 CJ E&M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반면 CJ E&M이 2006년부터 유지해오던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1위 배급사 자리는 2013년도에는 N.E.W (Next Entertainment World)가 차지했다. 그리고 외국영화 관객점유율 1위는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였다. 전반적으로 2013년도 배급시장은 CJ E&M, N.E.W,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4개의 한국 배급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그 뒤를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이십세기폭스가 차례로 뒤따르는 구도였다. 이처럼 배급사 순위 1위-4위를 한국 배급사가, 5위부터 8위를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가 차지한 것은 2012년에도 동일했다.

<표17> 연도별 배급사 관객점유율 및 순위 2008-2013

순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점 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점 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점 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점 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점 유율	배급사	상영 편수	관객점 유율
1	CJ	37	35.5	CJ	49	33.1	CJ	44	30.5	CJ	37.5	32.7	CJ	43	27.2	CJ	42	21.4
2	쇼박스	19	11.9	쇼박스	17	17.4	폭스	12	11.9	롯데	30.5	15.4	쇼박스	11	12.8	NEW	21	18.4
3	UPI	13	11.7	롯데	24	13.5	롯데	26	11.7	NEW	21.5	9	롯데	46	12.4	롯데	36.5	14.9
4	롯데	27	9.9	소니	21	9.8	워너	13	10.1	소니	19	8.5	NEW	16.5	12.1	쇼박스	13	13.7
5	소니	15	8	폭스	12	9	소니	22	10.1	쇼박스	15.5	8.3	소니	18	12	소니	18	9.5
	기타	300	22.9	기타	300	17.2	기타	358	25.7	기타	396.5	26.1	기타	586.5	23.5	기타	866.5	22.2
	계	411	100	계	423	100	계	475	100	계	520.5	100	계	721	100	계	997	100

※ 상영편수에는 이전년도에 개봉하여 당해연도까지 이월상영된 작품 편수 포함됨

CJ E&M은 9,34만명을 동원한 <설국열차>를 비롯하여 <베를린> <스파이> 등의 한국영화와 미국 영화 <터보>, <지.아이. 조 2>등을 배급, 총 45백만명의 관객(점유율 21.4%)을 동원하였다. 54백

만명을 동원하였던 2012년에 비해 관객수도 줄었고 점유율도 줄었지만, 배급사 흥행 1위자리를 지켰다.

2위를 차지한 N.E.W의 선전은 한국영화 흥행작의 힘이 크다. 1,281만명 관객의 <7번방의 선물>을 비롯, <변호인> (2014.01.19. 현재, 1,016만명) <숨바꼭질>(560만명) <감시자들>(551만명) <신세계>(468만명) <몽타주>(210만명) <반창꼬>(75만명, 2012년 12월 관객 포함시 총 248만명) 등의 한국작품을 배급, 총 3천9백만명을 관객(점유율 18.4%)을 동원하였다, 이 회사가 2013년 배급한 작품은 총 21편이고 이중 한국영화는 12편인데, 12편의 한국영화 관객수만 3천7백만명에 달한다. 또한 N.E.W가 2013년 배급한 12편의 작품들 안에는 <뫼비우스> <무계> <사이비> <배우는 배우다>등의 예술영화 또는 다양성 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도 포함되어 있다. N.E.W는 2012년도에는 11편의 한국영화를 배급하여 1천9백만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었다. 2009년 <킹콩을 들다>로 한국영화 배급업계에 데뷔한 이 회사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13년에는 마침내 CJ E&M,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의 3대 대기업 투자배급사를 모두 따돌리고 1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이 가지는 기동력 있는 결정, 작품의 가능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이 이 회사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투여가 제한되는, 공적자본이 출자된 투자조합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도 N.E.W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3위에 오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한국영화 <더 테러 라이브> <친구 2> 등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월드 워 Z>, <레드 2> 등으로 총 3천2백만명의 관객(점유율 14.9%)을 동원하였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한 쇼박스는 추석시즌 흥행작 <관상>(913만명)을 비롯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12편<sup>6)</sup>의 한국영화와 1편의 미국영화 <킬링 소프트웨어> 등 총 13편의 작품을 상영하여 2천9백만명(점유율 13.7%)을 극장가로 끌어들이었다.

전체 배급사 순위에서 4위부터 8위를 차지한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 중 관객수로 단연 돋보이는 배급사는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이다. 이 회사가 미국 소니와 디즈니 두 회사의 작품을 배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가 2013년 상영한 영화는 모두 18편이고 총 관객수는 2천만명(점유율9.5%)이다. 18편의 작품 중 <아이언맨 3> <토르: 다크월드>는 각각 9백만명과 3백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머지 작품들의 흥행성적은 좋은 편은 아니다.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의 뒤를 이어 배급사 흥행순위 6위를 차지한 워너브러더스는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중에서 2013년 가장 효율적으로 장사를 한 회사라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상영한 작품이 8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동원한 관객수(1천5백만명, 점유율 7%)는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가 18편의 작품을 상영하여 불러모은 관객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워너가 상영한 8편

6) <은밀하게 위대하게(확장판)>을 별개의 상영작으로 보았음. 동 작품의 확장판을 별개 상영작으로 보지 않을 경우, 2013년 쇼박스의 상영작은 한국영화 11편, 외국영화 1편 등 총 12편임.

의 작품 중 <그래비티>(320만명), <퍼시픽 림>(254만명), <컨저링>(226만명), <맨 오브 스틸>(218만명), <호빗 : 스마우그의 폐허>(212만명)등 총 5편이 2백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였다.

유니버설픽처스는 <어바웃 타임> <레미제라블> 등 13편의 작품으로 1천만명의 관객(점유율 4.9%)을, 이십세기폭스는 한국영화 <런닝맨>을 포함, <라이프 오브 파이>, <오블리비언> 등 13편의 작품을 상영하여 8백만명의 관객(점유율 4.0%)을 동원하며 배급사 순위 7위와 8위에 각각 올랐다. 특히 이십세기폭스는 계열회사인 이십세기폭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을 통해 조동오 감독의 <런닝맨>을 투자, 공동제작, 배급하였다. <러닝맨>의 관객수는 142만명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부가시장 매출까지 고려하면 로컬영화 투자배급 데뷔작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 회사는 <헬로 고스트>(2010, 290만명)를 연출한 김영탁 감독의 차기작 <슬로우 비디오>를 현재 제작중에 있다.

<표18> 배급사별 전체영화 시장점유율 2013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1	씨제이이엔엠(주)	42	327,543	21.2%	45,387,675	21.4%
2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1	280,011	18.1%	39,004,580	18.4%
3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36.5	225,373	14.6%	31,570,243	14.9%
4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13	208,221	13.5%	29,168,805	13.7%
5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스 코리아(주)	18	150,421	9.7%	20,166,825	9.5%
6	위너브러더스코리아(주)	8	121,377	7.9%	14,910,181	7.0%
7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13	75,267	4.9%	10,351,396	4.9%
8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3	65,894	4.3%	8,450,158	4.0%
9	아이러브시네마	1	21,783	1.4%	3,118,847	1.5%
10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15.5	12,597	0.8%	1,817,233	0.9%
	기타	816	57,122	3.7%	8,384,548	3.9%
	계	997	1,545,608	100%	212,330,491	100%

<표19> 한국영화 배급사별 시장점유율 2013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1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2	268,280	29.5%	37,353,107	29.4%
2	씨제이이엔엠(주)	25	255,776	28.1%	35,556,804	28.0%
3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12	208,176	22.9%	29,162,266	22.9%
4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16	119,830	13.2%	16,844,173	13.3%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5	아이러브시네마	1	21,783	2.4%	3,118,847	2.5%
6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	10,060	1.1%	1,422,844	1.1%
7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3	8,528	0.9%	1,227,013	1.0%
8	(주)인벤트스톤	5	4,673	0.5%	657,069	0.5%
9	(주)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3	3,394	0.4%	511,530	0.4%
10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6	2,273	0.3%	311,208	0.2%
	기타	135	6,432	0.7%	943,687	0.7%
	계	217	909,206	100.0%	127,108,547	100%

<표20> 외국영화 배급사별 시장점유율 2013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원)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관객 점유율
1	소니픽처스릴리징윌트디즈니스튜디오 스코리아(주)	18	150,421	23.6%	20,166,825	23.7%
2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8	121,377	19.1%	14,910,181	17.5%
3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5	105,543	16.6%	14,726,070	17.3%
4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13	75,267	11.8%	10,351,396	12.1%
5	씨제이이엔엠(주)	17	71,767	11.3%	9,830,871	11.5%
6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2	55,833	8.8%	7,027,314	8.2%
7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9	11,731	1.8%	1,651,473	1.9%
8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6	5,132	0.8%	761,731	0.9%
9	(주)영화사 빅	13	4,587	0.7%	704,108	0.8%
10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13	4,069	0.6%	590,220	0.7%
	기타	650.5	30,675	4.8%	4,501,755	5.3%
	계	780	636,402	100.0%	85,221,944	100.0%

#### 8) 다양성 영화 : 전체 시장의 성장세 속 다양성영화 하락세 지속

2013년도에 개봉한 다양성영화 편수는 342편으로 전년 232편 대비 47.4% 증가하였고, 전체 개봉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개봉편수는 대폭 늘어났지만 관객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서울관객 수에서 다양성영화 관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3.1%, 전국관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머물렀다. 2005년부터 통계수치를 보면 다양성



영화의 관객수 비율은 매년 증가, 2009년에 <워낭소리>(전국 299만명)의 흥행에 힘입어 서울관객 수 9.1%, 전국관객 수 6.6%로 최고 기록을 찍은 이후 한국영화 시장의 성장 속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영화 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21> 최근 5년간 다양성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개봉 편수	전체	361	426	439	632	905
	다양성영화	162	190	197	232	342
	다양성영화 비율(%)	44.9	44.6	44.9	36.7	37.8
서울 관객수	전체	44,948,210	46,278,808	47,880,098	55,822,861	60,089,222
	다양성영화	4,098,170	2,742,317	2,132,380	1,996,621	1,860,212
	다양성영화 비율(%)	9.1	5.9	4.5	3.6	3.1
전국 관객수	전체	156,960,266	149,182,008	159,724,465	194,890,587	213,324,223
	다양성영화	10,375,572	8,097,199	4,766,478	3,692,507	3,431,469
	다양성영화 비율(%)	6.6	5.4	3.0	1.9	1.6

※ 2009-2012년도는 2013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참고, 2013년도는 극장입장권통합전산망 다양성영화통계자료에 2013년도 예술영화인정영화 포함한 수치

2013년 다양성영화 중 가장 화제작은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이다. 제주도 4.3사건이라는 소재를 독특한 형식으로 그려내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으며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국 관객수 14만여 명을 기록하며 다양성영화 관객수 2위에 올랐다. 외국영화로는 우디 알렌 감독의 <로마 워드 러브>와 <블루 재스민>이 1,3위에 올랐고,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마지막 4중주> 등의 미국영화와 왕자웨이의 <일대종사>가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유명 감독의 영화, ‘막장’에 가까운 내용을 ‘교양’으로 잘 포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영화들이 주로 주목을 받았다.

<표22> 2013년 다양성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순위	영화명	국적	전국관객 수(명)	서울관객 수(명)	전국스크린 수
1	로마 워드 러브	미국	180,743	117,098	201
2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한국	143,715	61,482	81
3	블루 재스민	미국	140,233	89,675	207
4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미국	126,420	75,651	226
5	마지막 4중주	미국	107,975	69,561	29
6	일대종사	중국	101,568	47,391	193
7	로덴시아: 마법왕국의 전설	페루	98,581	24,021	221
8	토토의 움직이는 숲	덴마크	78,571	11,937	191
9	쿵후팬더: 영웅의 탄생	중국	74,250	12,207	197
10	오싱	일본	73,064	31,741	233

한국영화 중에서도 역시 홍상수, 김기덕, 민규동 등 고정팬을 보유한 유명 감독의 영화들이 상위권에 올라있고, 그밖에 다큐멘터리 2편(<길위에서>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 상위권에 올라있다.

외국영화 중에서는 페루,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유럽과 남미 국적의 애니메이션 6편이 5만-10만명의 전국관객 수를 기록하며 20위권 내에 올라있는 점이 눈에 띈다. 가족관객을 타겟으로 하는 영화가 늘어나고 극장 개봉 후 IPTV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다양성영화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다양성영화의 편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해져 극장 상영이 힘들어지고, 상영이 된다 해도 좋은 시간대에 걸리지 못하는 등 다양성영화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성영화가 동반성장 하기 위해 ‘다양성영화’, ‘예술영화’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정립과 더불어 그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23> 2013년 다양성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한국영화)

순위	영화명	전국관객 수(명)	서울관객 수(명)	전국스크린 수
1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143,715	61,482	81
2	우리 천희	68,697	43,199	39
3	길위에서	53,230	25,595	23
4	블랙가스펠	50,985	26,905	143
5	끝과 시작	38,735	14,260	185
6	뫼비우스	35,347	15,600	128
7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34,876	26,400	35
8	어떤 시선	31,014	7,626	28
9	짚	23,052	5,633	159
10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22,149	10,922	31

<표24> 2013년 다양성영화 관객 수 상위 10위 (외국영화)

순위	영화명	국적	전국관객 수(명)	서울관객 수(명)	전국스크린 수
1	로마 워드 러브	미국	180,743	117,098	201
2	블루 재스민	미국	140,233	89,675	207
3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미국	126,420	75,651	226
4	마지막 4중주	미국	107,975	69,561	29
5	일대종사	중국	101,568	47,391	193
6	로덴시아: 마법왕국의 전설	페루	98,581	24,021	221
7	토토의 움직이는 숲	덴마크	78,571	11,937	191
8	쿵후팬더: 영웅의 탄생	중국	74,250	12,207	197

순위	영화명	국적	전국관객 수(명)	서울관객 수(명)	전국스크린 수
9	오싱	일본	73,064	31,741	233
10	투 마더스	프랑스	71,240	29,994	198

## 2. 2013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 현황<sup>7)</sup>

2013년은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2013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 총 매출 규모는 2,676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24.0%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09년 888억에서 2013년 2,676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3배로 성장했다. 2009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매출 규모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25> 전체 디지털 온라인 시장 매출 규모<sup>8)</sup>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262	-	491	87.4	910	85.3	1,310	44.0	1,737	32.6
인터넷 VOD	223	-	267	19.7	501	87.6	618	23.4	729	18.0
패키지 상품	403	-	351	-12.9	298	-15.1	230	-22.8	210	-8.7
합계	888	-	1,109	24.9	1,709	54.1	2,158	26.3	2,676	24.0

※ 인터넷 VOD에는 모바일과 N스크린 서비스의 매출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2013년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이하 TV VOD<sup>9)</sup>)였다. TV VOD는 1,7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체 시장에서 64.9%의 점유율을 보였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 TV VOD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9.5%, 2010년 44.3%, 2011년 53.2%, 2012년 60.7%, 2013년 64.9%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 TV VOD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VOD<sup>10)</sup>의 매출은 729억 원으로

7)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영화 부가시장을 대체하는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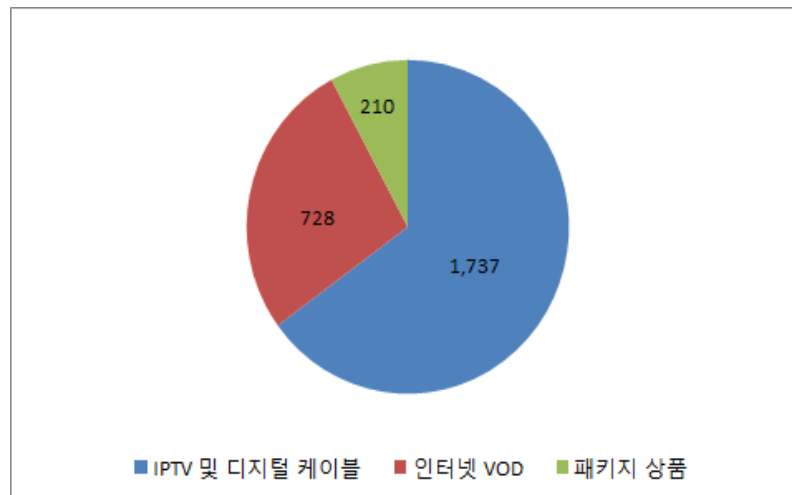
8) IPTV 및 디지털 케이블은 IPTV 3개사와 디지털 케이블 1개사로부터 매출을 제공받아 비교적 정확도가 높지만 인터넷 VOD는 관련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매출 자료와 전년 대비 성장률로 추산한 추정치를 합산하여 시장 규모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는 디지털 온라인 시장의 가이드로서만 참고하길 바란다.

9)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하고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영화 디지털 온라인 유통이 인터넷 VOD라는 표현으로 모두 수렴될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IPTV 및 디지털케이블 TV를 'TV VOD' 서비스로 그 외 웹하드 등을 통한 특수유형OSP의 서비스와 네이버, 호핀과 같은 일반유형OSP의 서비스를 '인터넷 VOD'라고 칭하기로 한다.

10)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를 TV VOD로 그 외 웹하드 등을 통한 특수유형 OSP의 서비스와 네이버, 호핀과 같은 일반유형 OSP의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를 인터넷 VOD로 분류하였다.

27.2%의 점유율을 보였다. 패키지 상품 매출이 210억 원으로 7.8%의 가장 적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림 3>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시장 규모(단위: 억 원)



### 1)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2013년 5월을 기점으로 IPTV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디지털케이블 TV 가입자는 2013년 11월 기준으로 612만 명이다. 1,300만이 넘는 가정에 IPTV 또는 디지털케이블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TV VOD 시장의 성장의 원인은 제공되는 영화편수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수의 증가이다. TV VOD 시장 규모는 2009년 262억에서 2013년 1,737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7배 가까이 성장했다.

<표26>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시장 매출 규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억 원)	262	491	910	1,310	1,737
전년대비 증감(%)		87.4	85.3	44.0	32.6

2013년 TV VOD 전체 영화 순위 1위는 <7번방의 선물>이 차지했다. 외국영화 순위 1위에 오른 <아이언맨 3>는 극장 흥행에서 9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박스오피스 11위에 오른 흥행작임에도 불구하고 TV VOD 흥행 결과를 살펴보면 <7번방의 선물>이 936,004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한 반면 <아이언맨 3>는 <7번방의 선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6,820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 극장의 상위 10위권에서 <아이언맨 3>를 제외하곤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흥행성공의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TV 플랫폼이라는 특성에 맞게 가족 단위의 관람이

가능한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TV VOD 이용 순위에서 드러나듯이 극장 흥행과 TV VOD 흥행이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전체 영화 순위에 이름을 올린 영화들 모두 3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극장 흥행작들이었다.

<표27> 2013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전체 영화 순위

순위	영화명	매출	이용 건수
1	7번방의 선물	5,218,749,353	936,004
2	광해, 왕이 된 남자	3,749,410,358	966,222
3	은밀하게 위대하게	3,746,788,388	626,394
4	신세계	3,504,522,769	721,429
5	관상	3,137,446,575	752,313
6	박수건달	2,578,489,284	666,822
7	더 테러 라이브	2,522,127,843	430,761
8	감시자들	2,479,203,730	465,485
9	숨바꼭질	2,302,414,109	408,471
10	늑대소년	2,117,686,245	526,202

<표28> 2013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한국영화 순위

순위	영화명	매출	이용 건수
1	7번방의 선물	5,218,749,353	936,004
2	광해, 왕이 된 남자	3,749,410,358	966,222
3	은밀하게 위대하게	3,746,788,388	626,394
4	신세계	3,504,522,769	721,429
5	관상	3,137,446,575	752,313
6	박수건달	2,578,489,284	666,822
7	더 테러 라이브	2,522,127,843	430,761
8	감시자들	2,479,203,730	465,485
9	숨바꼭질	2,302,414,109	408,471
10	늑대소년	2,117,686,245	526,202

<표29> 2013년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외국영화 순위

순위	영화명	매출	이용 건수
1	아이언맨 3	2,087,767,142	376,820
2	오블리비언	1,863,357,722	494,801
3	지.아이.조 2	1,502,657,914	395,646
4	월드워Z	1,436,026,561	359,946
5	엘리시움	1,336,817,392	224,349
6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	1,281,881,990	228,255

7	백악관 최후의 날	1,142,399,335	210,118
8	애프터어스	1,101,185,457	290,220
9	퍼시픽 림	975,999,313	174,569
10	레미제라블	960,082,795	268,381

## 2) 인터넷 VOD

TV VOD 시장이 가입자를 기반으로 매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터넷 VOD 시장은 2011년 87.6%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둔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2013년 72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8.0% 증가하였다. 일반유형 OSP와 특수유형 OSP의 매출 비율은 46.5 대 53.5로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OSP의 영화 매출이 일반유형 OSP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비 두 유형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표30> 인터넷 VOD 시장 매출 규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억 원)	223	267	501	618	729
전년대비 증감(%)	-	19.7	87.6	23.4	18.0

인터넷 VOD 전체 영화 순위 1위는 <신세계>가 차지했다. 인터넷 VOD의 경우는 개인 관람 형태가 많다는 특성이 반영되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가 TV VOD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TV VOD 전체 영화 순위 10위권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는 <신세계> 단 1편인 반면 인터넷 VOD는 <신세계>, <나의 PS 파트너>, <바람: wish - 감독판> 등 3편의 영화가 10위권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TV VOD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VOD 역시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였다. 인터넷 VOD 전체 영화 순위 10위권을 모두 한국영화가 장식했다.

외국영화 순위의 경우 소위 '19금 영화'로 불리는 성인 취향의 영화들이 순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개인 관람이라는 인터넷 VOD 관람 형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표31> 2013년 인터넷 VOD 전체 영화 순위<sup>1)</sup>

순위	영화명	이용 건수
1	신세계	395,256
2	광해, 왕이 된 남자	236,000
3	7번방의 선물	214,000
4	나의 PS 파트너	167,500
5	베를린	155,000
6	관상	144,000
7	바람: wish - 감독판(18세 버전 포함)	135,314
8	26년	123,430

9	늑대소년	122,000
10	은밀하게 위대하게	122,000

<표32> 2013년 인터넷 VOD 한국영화 순위

순위	영화명	이용 건수
1	신세계	395,256
2	광해, 왕이 된 남자	236,000
3	7번방의 선물	214,000
4	나의 PS 파트너	167,500
5	베를린	155,000
6	관상	144,000
7	바람: wish - 감독판(18세 버전 포함)	135,314
8	26년	123,430
9	늑대소년	122,000
10	은밀하게 위대하게	122,000

<표33> 2013년 인터넷 VOD 외국영화 순위

순위	영화명	이용 건수
1	브레이킹 던 part2	114,368
2	헝거게임	103,851
3	옥보단	86,706
4	이투마마	84,430
5	칼리쿨라	77,894
6	이프 온리	71,159
7	레드	65,217
8	살롱키티	62,913
9	백악관 최후의 날	57,202
10	브레이킹 던 part1	56,044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인 T스토어와 N스크린 서비스인 호핀의 2013년 영화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TV VOD, 인터넷 VOD와 마찬가지로 극장 흥행작과 한국영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N스크린 역시 인터넷 VOD와 마찬가지로 개인 관람 형태의 특성이 반영되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가 순위에 다수 올라있다.

11)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영화 순위는 전체 플랫폼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출한 것으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나 인터넷 VOD 영화 순위는 자료 요청에 응답한 업체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영화 온라인상영권 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보다 정확한 집계 가능할 것이다.

<표34> 2013년 T스토어 영화 이용 순위<sup>12)</sup>

순위	영화명
1	7번방의 선물
2	신세계
3	광해, 왕이 된 남자
4	늑대소년
5	반창꼬
6	은밀하게 위대하게
7	감시자들
8	나의 PS 파트너
9	26년
10	가문의 영광5 - 가문의 귀환

<표35> 2013년 호편 영화 이용 순위

순위	영화명
1	7번방의 선물
2	신세계
3	광해, 왕이 된 남자
4	젊은 엄마
5	나의 PS 파트너
6	은밀하게 위대하게
7	늑대소년
8	감시자들
9	더 테러 라이브
10	박수건달

인터넷 VOD 시장에서 독립영화의 이용 순위를 집계하기는 어려우나 <표36>와 <표37>는 독립영화 전문 온라인 배급사인 인디플러그에서 유통한 영화의 IPTV와 인터넷 VOD 한국독립영화 이용순위이며, 이 순위를 기준으로 2013년 한 해 가장 많이 이용된 독립영화를 가늠케 한다.

<표36> 2013년 인디플러그 배급 IPTV 한국독립영화 이용순위

순위	영화명
1	개들의 전쟁
2	파닥파닥
3	잠 못 드는 밤
4	살결
5	누나
6	백야
7	철암계곡의 혈투
8	러시안 소설
9	달려라 장미
10	굿바이 홈런

<표37> 2013년 인디플러그 배급 인터넷 VOD 한국독립영화 이용순위

순위	영화명
1	개들의 전쟁
2	파닥파닥
3	똥파리
4	백야
5	지난 여름 갑자기 + 남쪽으로 간다
6	악인은 너무 많다
7	그녀의 연기
8	줄탁동시
9	누나
10	원 나잇 스탠드

12) SK플래닛에서 제공받은 T스토어와 호편의 영화 매출 순위이다.



### 3) 패키지 시장

패키지 시장은 200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패키지 시장 규모는 210억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하였다. 패키지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나 블루레이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블루레이는 높은 타이틀 가격과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낮은 보급률로 인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는데 최근 블루레이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패키지 매출은 210억 원인데 이중 DVD가 차지하는 비중이 54%, 블루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였다. 블루레이가 DVD에 맞먹는 매출액을 기록한 것이다.

패키지 상품 판매 상위에 랭크된 작품들은 <레미제라블>, <아이언맨 3>으로 주로 외국영화가 차지했다. 패키지 시장에서는 소장 가치가 높은 외국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590여만명 극장동원을 하며 한때 원작의 관심으로 서적의 판매실적까지 올린 <레미제라블>의 경우 TV VOD나 인터넷 VOD 이용실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외국작품의 경우 소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플랫폼과는 다른 소비성향을 패키지 상품에서 보이고 있다. 한국영화로 유일하게 상위에 오른 작품은 <도둑들>이었다. <주먹왕 랄프>, <몬스터 대학교>, <라푼젤>, <몬스터 주식회사> 등 애니메이션의 상품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패키지 시장 이용자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38> 패키지 시장 규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금액(억 원)	403	351	298	230	210
전년대비 증감(%)	-	-12.9	-15.1	-22.8	-8.7

### 3. 한국영화 제작비와 투자 수익성

2013년에 개봉한 한국영화는 총 182편<sup>13)</sup>으로 전체 제작비 총액은 3,894.8억 원<sup>14)</sup>으로 추산되어 2012년 3,532.2억 원에 비해 362.6억 원 증가하였다. 2013년 한국영화의 평균 총제작비는 21.4억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2012년 평균에 비해 1.1억원 증가하였으나, 2003~2004년도 41.6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08년 이후 한국영화 극장 개봉작 중 저예산영화 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3년에는 전년에 이어 증가편수가 또다시 확대되었다.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영화가 125편으로 전체 한국영화 개봉작의 68.3%를 차지하여 편수나 비중의 부분에서 최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에 비해 저예산영화의 제작이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IPTV 등 디지털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라 소위 예로 영화로 불리는 성인물이 극장에서 1일 이상 개봉할 경우 개봉작의 범주 내로 포함시키게 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상업영화<sup>15)</sup> 개봉작의 평균 제작비는 57.4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억 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균 순제작비가 전년에 비해 10억 원 가량 커졌고, 평균 마케팅비는 0.6억 원 정도 늘어났다. 평균 제작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설국열차>, <미스터고> 등 글로벌시장 타킷의 대형 블록버스터 작품이 제작됨에 따라 순제작비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39> 연도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구분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 (A + B)
	평균 순제작비 (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 (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 (억 원)
2004	28.0	67.3	13.6	32.7	41.6
2005	27.3	68.4	12.6	31.6	39.9
2006	25.8	64.2	14.4	35.8	40.2
2007	25.5	68.5	11.7	31.5	37.2
2008	20.7	68.8	9.4	31.2	30.1
2009	15.6	67.5	7.5	32.5	23.1
2010	14.2	65.7	7.4	34.3	21.6
2011	15.5	68.3	7.2	31.7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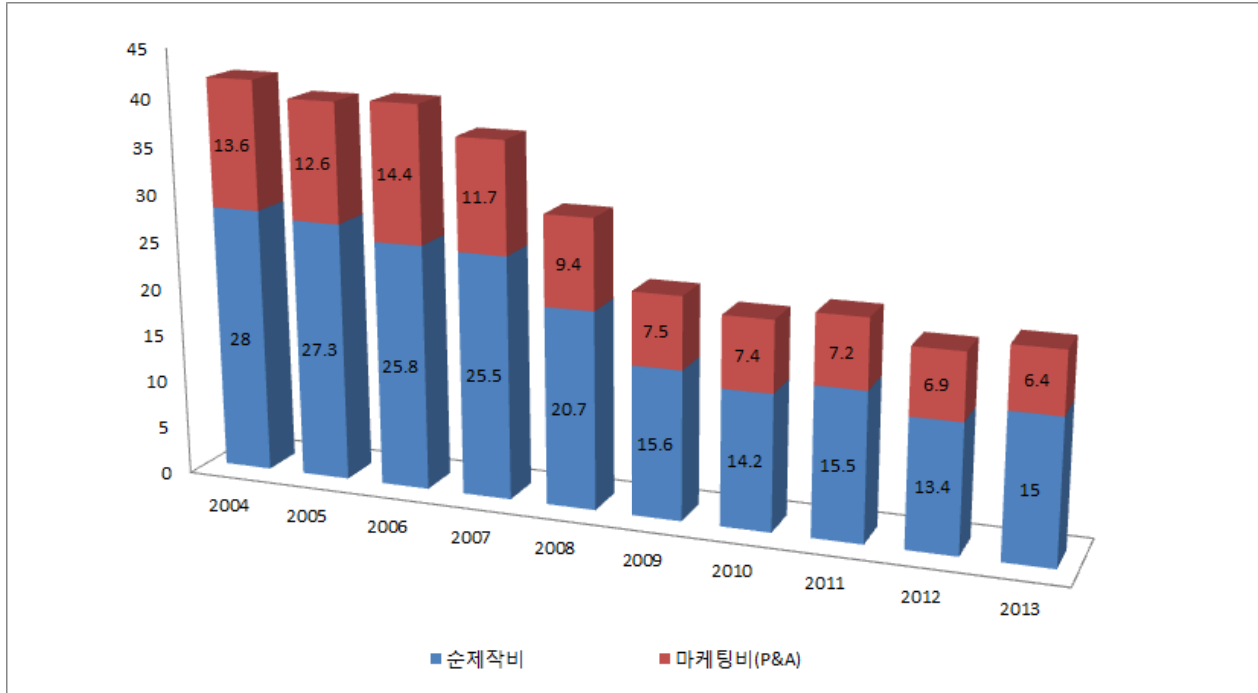
13) 2013년 개봉작 183편 중 <은밀하게 위대하게(확장판)>을 제외한 수치임

14) 2013년 한국영화 제작비 총액(추산) = 2013년 개봉편수 × 2013년 평균 총제작비

15) '상업영화'는 한국영화 투자수익성 분석 조사대상인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이상인 작품)를 임의 지칭함

구분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 (A + B)
	평균 순제작비 (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 (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 (억 원)
2012	13.4	66.0	6.9	34.0	20.3
2013	15.0	70.1	6.4	29.9	21.4

<그림 4> 연도별 한국영화 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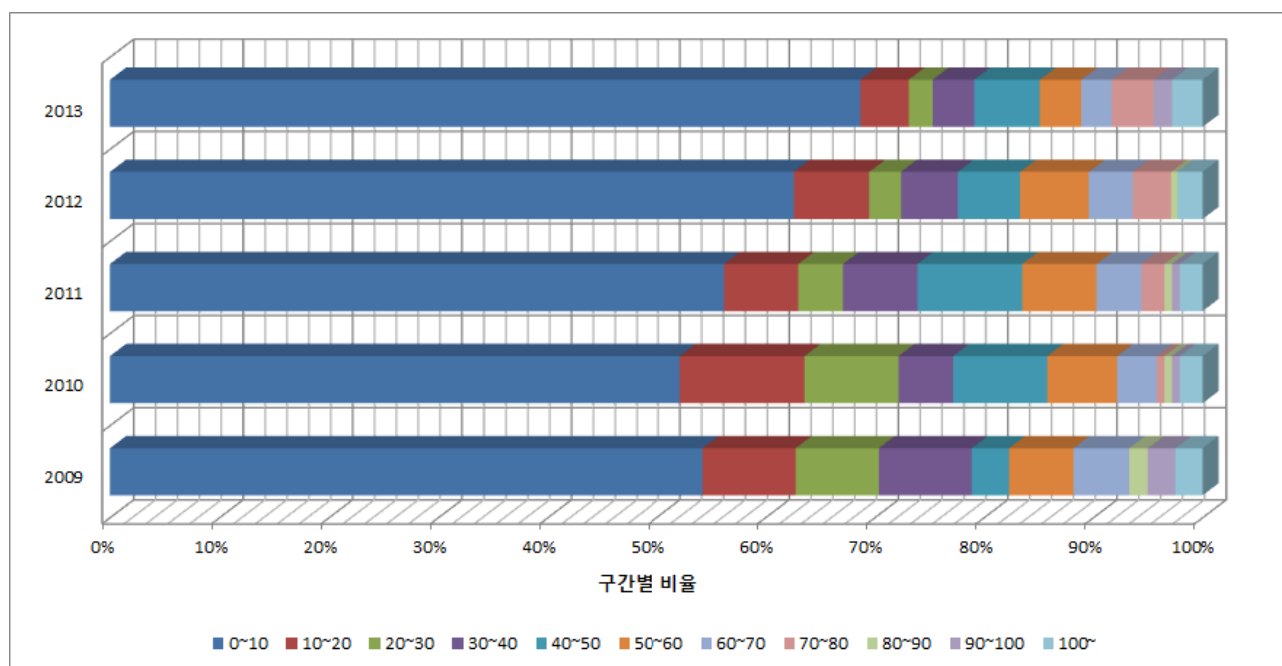
<표40> 연도별 한국 상업영화 개봉작 평균 제작비

구분	순제작비(A)		마케팅비(P&A)(B)		총제작비 (A + B)
	평균 순제작비 (억 원)	비중(%)	평균 마케팅비 (억 원)	비중(%)	평균 총제작비 (억 원)
2009	30.3	59.1	21.0	40.9	51.3
2010	27.2	64.9	14.7	35.1	41.9
2011	32.5	67.6	15.6	32.4	48.1
2012	30.4	65.0	16.4	35.0	46.8
2013	40.4	70.4	17.0	29.6	57.4

<표41>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

구분 (억 원)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	합계
2009	편수 (편)	64	10	9	10	4	7	6	0	2	3	3	118
	비율	54.2%	8.5%	7.6%	8.5%	3.4%	5.9%	5.1%	0.0%	1.7%	2.5%	2.5%	100%
2010	편수 (편)	73	16	12	7	12	9	5	1	1	1	3	140
	비율	52.1%	11.4%	8.6%	5.0%	8.6%	6.4%	3.6%	0.7%	0.7%	0.7%	2.1%	100%
2011	편수 (편)	82	10	6	10	14	10	6	3	1	1	3	146
	비율	56.2%	6.8%	4.1%	6.8%	9.6%	6.8%	4.1%	2.1%	0.7%	0.7%	2.1%	100%
2012	편수 (편)	109	12	5	9	10	11	7	6	1	0	4	174
	비율	62.6%	6.9%	2.9%	5.2%	5.7%	6.3%	4.0%	3.5%	0.6%	0.0%	2.3%	100%
2013	편수 (편)	125	8	4	7	11	7	5	7	0	3	5	182
	비율	68.7%	4.4%	2.2%	3.8%	6.0%	3.8%	2.8%	3.8%	0%	1.7%	2.8%	100%

<그림 5> 연도별 총제작비 구간별 한국영화 개봉편수 분포 비율



2013년 개봉한 한국영화 중 투자 수익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상업영화는 63편<sup>16)</sup>으로 전년 70편에 비해 7편 감소하였다. 해당 영화의 평균 총제작비는 57.4억 원(평균 순제작비 40.4억 원, 평균

16) 한국영화 투자 수익성 분석 대상은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므로 2013년에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182편 중 총제작비 10억원 미만이고,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미만인 작품 119편은 제외함.

마케팅비 17.0억 원)으로 전체 개봉작의 평균 총제작비(21.4억 원)보다 2.7배 가량 큰 수치이다.

2013년 한국영화 전체 개봉작 182편 중 요건에 맞는 63편을 기준으로 산정한 투자수익률은 15.2%로 잠정 집계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한국영화 개봉작 제작비 간이조사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sup>17)</sup>를 근거로 추정한 가집계 결과이긴 하지만, 2012년 13.3%보다 1.9% 높게 산출되었다.

2013년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15.2%를 기록한 것은 영화산업 내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이 수치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제작된 <설국열차>, <이별계약> 등 해외 매출 수익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할 때 추후 수익률이 더 높게 산출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대 최대 극장 관객 수와 매출액 달성, 한국영화 수출액 급증, 디지털온라인시장 지속적 성장 등 영화산업의 긍정적인 신호 아래서 달성한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투자수익률이므로, 2006부터 2011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해 오던 영화산업이 이제는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당 영화 수익성의 잣대가 되는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영화는 19편으로 전체 상업영화 63편 중 약 30.2%에 해당하였고, 이 중 투자수익률 100%를 상회하는 작품은 8편으로 전체의 약 12.7%를 차지하였다.

<표42> 2004~2013년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매출	285,462	336,786	388,058	266,927	200,839	245,821	263,449	293,916	438,458	416,121
총비용	276,958	312,117	513,640	448,813	355,667	282,945	296,001	344,700	386,873	361,345
총이익	8,504	24,669	-125,582	-181,886	-154,827	-37,123	-32,552	-50,784	51,585	54,776
투자 수익률	3.1%*	7.9%	-24.5%	-40.5%	-43.5%	-13.1%	-11.0%	-14.7%	13.3%	15.2

\* 2004년의 수익률은 표본 분석한 결과이고, 2005년부터는 한 해 극장 개봉된 한국영화에 대한 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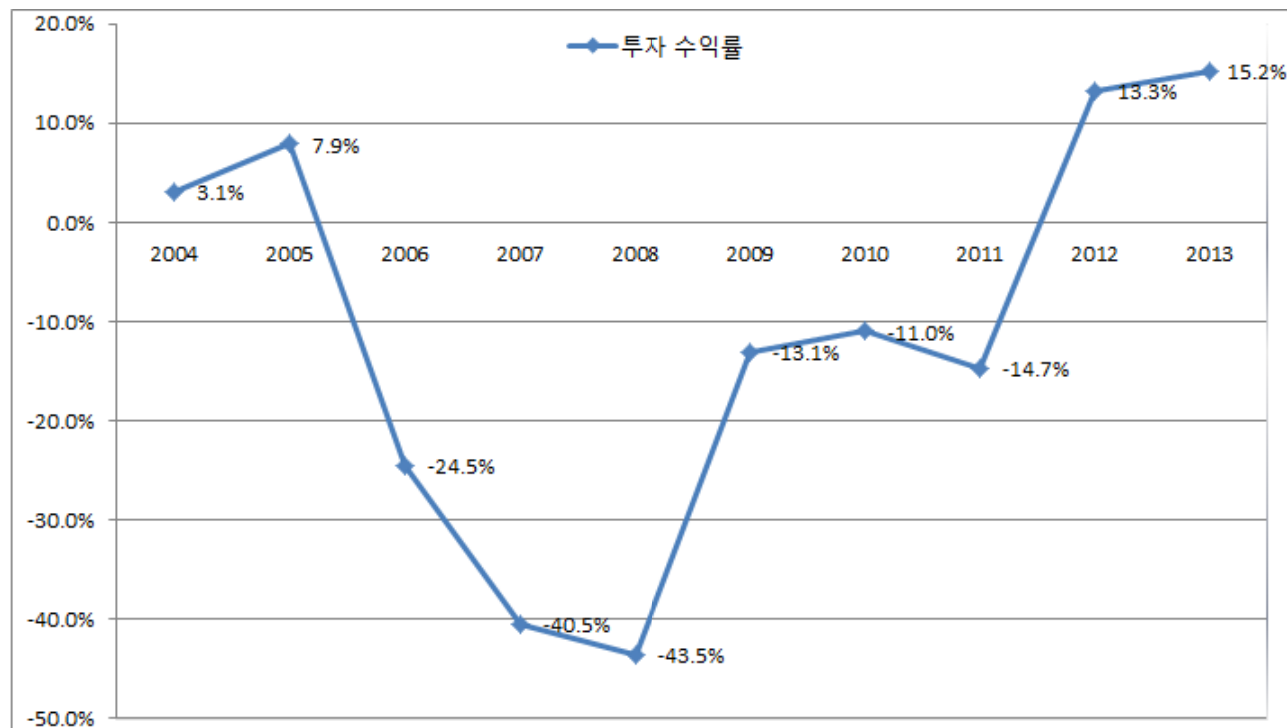
\*\* 2004년부터 전국 관객 수 집계기 실시됨에 따라 2004년 투자 수익성 분석 종료 이후 2004년도 전체 개봉 영화에 대한 전수 추정치를 다시 산정하였으며, 이 경우 2004년 투자 수익률은 -6.20%임

\*\*\* 2010년부터는 극장 개봉된 한국영화 중 통상적으로 상업적인 기획으로 제작 . 배급되는 경향의 영화를 조사 대상으로 한 정함(총비용 10억원 미만이고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미만인 작품 제외)

\*\*\*\* 2013년 산출결과는 한국영화 개봉작 제작비 간이조사 및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가집계 결과임

17)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2014년 1월 20일 기준) 자료를 근거로 작품별 극장 매출액과 기타 매출액(디지털온라인시장(IPTV 등), 해외시장 등 매출액)을 추정하여 한국영화 전체 투자수익률을 산정함

<그림 6> 연도별 한국영화 투자수익률 추이



<표43> 2013년 한국영화 개봉작 투자수익률(추정치)

구분		한국영화 개봉작 <sup>18)</sup>	비고
수익성 분석 대상 작품 편수		63편	
평균 총제작비(A)	평균 순제작비	40.4억원	
	평균 마케팅비	17.0억원	
	합계	57.4억원	
평균 총매출액(B)		66.1억원	
평균 수익액(C= B-A)		8.7억원	
평균 수익률		15.2%	
손익분기점(BEP) 상회 편수		19편	
손익분기점(BEP) 상회 비율		30.2%	
수익률 50% 상회 편수		11편	수익률 100% 상회 편수 포함
수익률 50% 상회 비율		17.5%	수익률 100% 상회 비율 포함
수익률 100% 상회 편수		8편	
수익률 100% 상회 비율		12.7%	

18) 2013년에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182편 중 총제작비 10억원 미만이고, 전국 개봉 스크린 수가 100개 미만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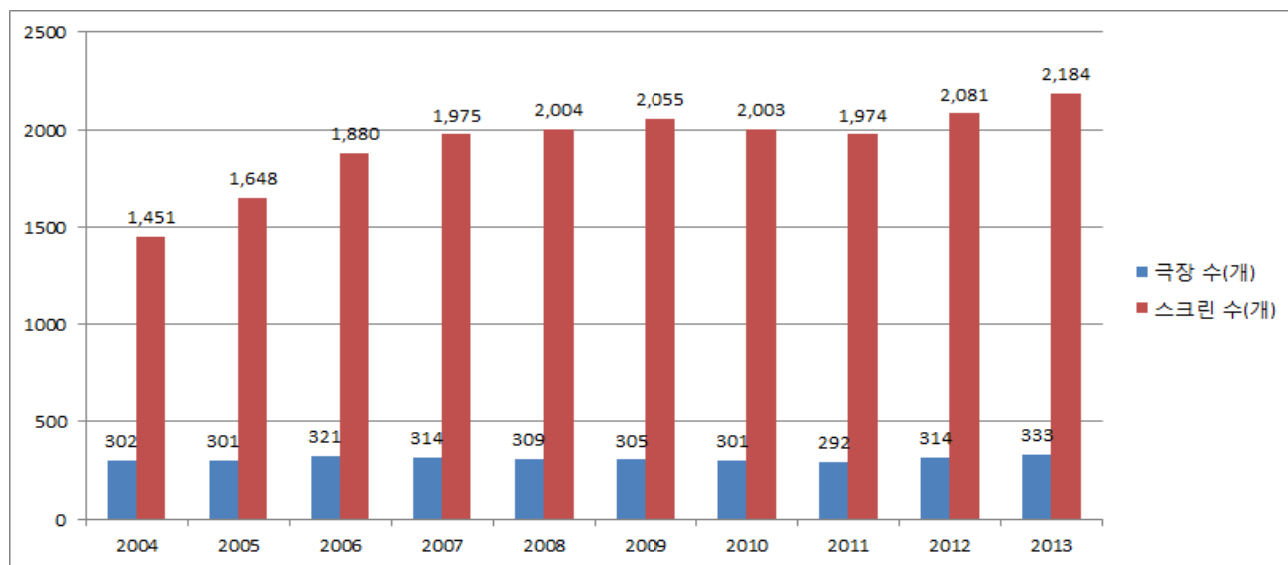
#### 4.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2013년 전국 극장 수는 전년도 314개에서 6.1% 증가한 333개를 기록했다. 2013년 스크린 수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치인 2,184개로 지난해 대비 4.9% 증가하였다. 2013년 휴·폐관한 극장은 9개, 스크린은 68개다. 또한 3D가 상영이 가능한 상영관 수는 2013년 859개관으로 지난해 830개관보다 3.5%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4D가 상영가능한 관도 25개관으로 지난해 대비 4개관 늘었는데, 이는 전체 상영관수 대비 40%에 달하는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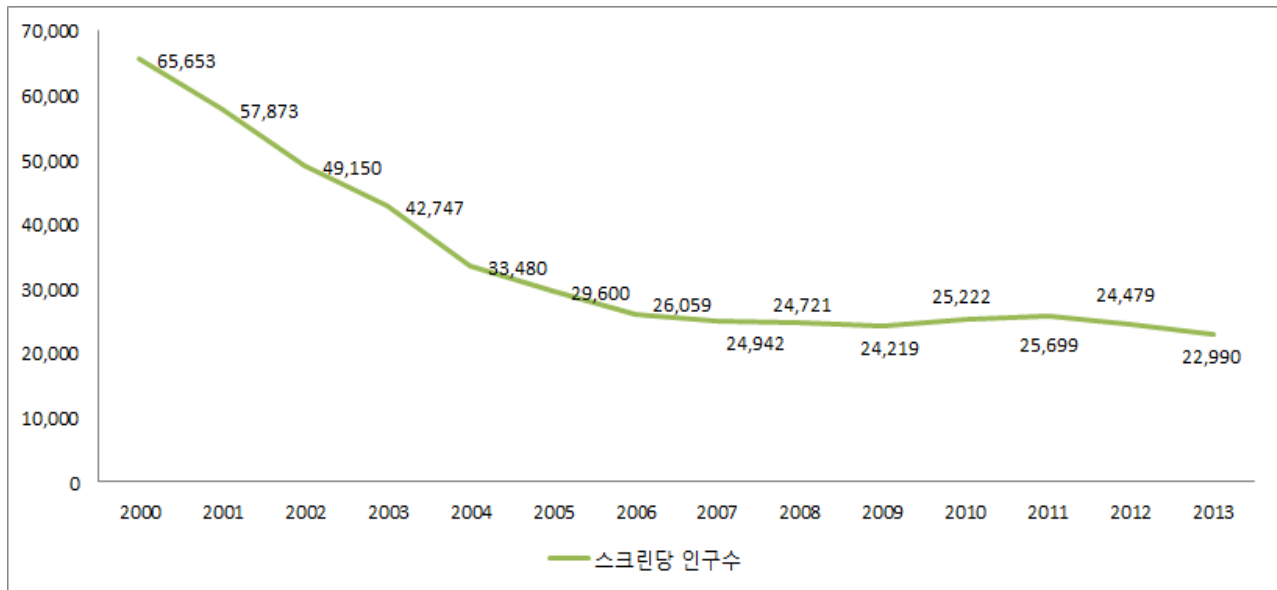
<표44>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연도	총 관객(만 명)	극장 수(개)	스크린 수(개)	좌석 수(개)
2004	13,517	302	1,451	297,584
2005	14,552	301	1,648	322,110
2006	15,341	321	1,880	354,691
2007	15,877	314	1,975	365,034
2008	15,083	309	2,004	362,657
2009	15,696	305	2,055	360,796
2010	14,681	301	2,003	349,640
2011	15,979	292	1,974	341,905
2012	19,489	314	2,081	358,659
2013	21,332	333	2,184	349,669

<그림 7> 연도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그림 8> 연도별 스크린 당 인구 수(단위: 명)



2013년에 스크린이 늘어난 지역은 울산이 전년대비 38.5%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광주가 21.6% 증가하며 107개의 스크린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충남(73개, 전년대비 10.6% 증가), 경북(94개, 전년대비 8.0% 증가), 전남, 대구, 서울에 이르기까지 대전(61개, 전년대비 11.6% 감소)을 제외하곤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체 스크린 수 증가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9%를 나타냈다.

서울은 15개의 스크린이 늘어 총 스크린 475개로 기록되었다. 이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극장은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부산과 세종, 강원, 충북·충남만이 변화가 없었다.

<표45> 2013년 전국 극장, 스크린 수 (단위 : 개)

지역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서울	71	74	3	4.2%	460	475	15	3.3%	84,737	81,553	-3,184	-3.8%
부산	25	25	0	0.0%	182	183	1	0.5%	34,038	32,350	-1,688	-5.0%
대구	18	19	1	5.6%	125	131	6	4.8%	21,813	21,224	-589	-2.7%
인천	16	17	1	6.3%	110	111	1	0.9%	18,425	18,327	-98	-0.5%
광주	12	14	2	16.7%	88	107	19	21.6%	16,514	18,151	1,637	9.9%
대전	10	9	-1	-10.0%	69	61	-8	-11.6%	12,791	10,716	-2,075	-16.2%
울산	4	5	1	25.0%	26	36	10	38.5%	3,904	6,009	2,105	53.9%
경기	67	73	6	9.0%	453	486	33	7.3%	74,419	77,729	3,310	4.4%



지역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2012	2013	전년 대비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증감수	증감률
강원	9	9	0	0.0%	62	62	0	0.0%	9,694	9,703	9	0.1%
충북	9	9	0	0.0%	70	72	2	2.9%	12,099	12,341	242	2.0%
충남	12	12	0	0.0%	66	73	7	10.6%	9,560	10,419	859	9.0%
전북	13	15	2	15.4%	74	77	3	4.1%	12,129	11,904	-225	-1.9%
전남	7	8	1	14.3%	49	52	3	6.1%	7,591	7,426	-165	-2.2%
경북	15	16	1	6.7%	87	94	7	8.0%	15,396	7,835	-7,561	-49.1%
경남	20	21	1	5.0%	125	128	3	2.4%	20,979	21,237	258	1.2%
제주	5	6	1	20.0%	30	31	1	3.3%	3,832	2,007	-1,825	-47.6%
세종	1	1	0	0.0%	5	5	0	0.0%	738	738	0	0.0%
총계	314	333	19	6.1%	2,081	2,184	103	4.9%	358,659	349,669	-8,990	-2.5%

2013년 전국 극장의 83.5%가 멀티플렉스<sup>19)</sup> 극장이다. 지난해 대비 전체 극장수와 멀티플렉스 수는 각각 333개, 278개로 증가하였지만 멀티플렉스 극장 비중은 전년대비 오히려 0.2%p 감소하였다. 하지만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수 비중은 94.9%로 지난해의 94.5%보다 0.4%p 올랐다. 지역별로는 충북, 전남, 세종시가 모든 극장이 멀티플렉스였다. 충북은 9개 극장의 72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으며, 전남은 총 8개 극장 52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집계된 세종시는 1개 극장 5개 스크린이 멀티플렉스였다.

멀티플렉스의 시장 점유율은 총 관객 수의 98.4%를 보이고 있고, 총매출 점유율도 98.6%에 이른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극장 대비 멀티플렉스의 비중은 가장 낮은 60.0%를 차지했지만 관객 점유율의 경우는 98.9%로 대부분의 관객이 멀티플렉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역극장의 폐관·휴관 또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으로의 전환이 반영된 현상이며 따라서 멀티플렉스의 관객 수가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9) 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너스, CJ CGV의 직영 및 위탁 경영 지점과 기타 7개관 이상 모 든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집계하고 있다.

<표46> 2013년 멀티플렉스 비중

지역	극장 수 (개)			스크린 수 (개)			관객 수 (천명)			극장 매출 (천원)		
	전체 극장수	멀티플렉스 극장수	멀티플렉스 비중	전체 스크린수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	멀티플렉스 비중	전체 관객 수	멀티플렉스 관객 수	멀티플렉스 비중	전체 극장 매출	멀티플렉스 극장 매출	멀티플렉스 비중
서울	74	59	79.7	475	456	96.0	60,089	58,962	98.1	460,370,350	454,036,218	98.6
부산	25	22	88.0	183	178	97.3	17,209	17,065	99.2	122,315,533	121,421,297	99.3
대구	19	17	89.5	131	129	98.5	12,720	12,570	98.8	89,275,774	87,798,406	98.3
인천	17	13	76.5	111	100	90.1	10,610	10,333	97.4	78,009,550	76,422,701	98.0
광주	14	12	85.7	107	105	98.1	8,323	8,293	99.6	57,499,026	57,290,260	99.6
대전	9	6	66.7	61	49	80.3	8,025	7,404	92.3	57,343,638	53,006,794	92.4
울산	5	4	80.0	36	34	94.4	4,216	4,216	100.0	31,170,904	31,170,904	100.0
경기	73	66	90.4	486	471	96.9	46,668	46,297	99.2	338,338,179	336,002,932	99.3
강원	9	8	88.9	62	61	98.4	4,791	4,782	99.8	33,932,676	33,880,619	99.8
충북	9	9	100.0	72	72	100.0	5,369	5,315	99.0	36,781,479	36,429,338	99.0
충남	12	8	66.7	73	61	83.6	6,016	5,833	97.0	42,862,516	41,547,788	96.9
전북	15	9	60.0	77	61	79.2	6,105	6,040	98.9	42,122,475	41,761,931	99.1
전남	8	8	100.0	52	52	100.0	3,625	3,625	100.0	24,644,742	24,644,622	99.9
경북	16	14	87.5	94	92	97.9	6,309	6,289	99.7	44,372,377	44,246,603	99.7
경남	21	17	81.0	128	116	90.6	11,107	10,679	96.1	77,115,572	75,033,637	97.3
제주	6	5	83.3	31	30	96.8	1,840	1,834	99.7	13,084,154	13,052,513	99.8
세종	1	1	100.0	5	5	100.0	302	302	100.0	1,925,777	1,925,777	100.0
합계	333	278	83.5	2,184	2,072	94.9	213,324	209,839	98.4	1,551,164,722	1,529,672,340	98.6

\* 극장 수와 스크린 수는 2013년 12월~2014년 1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근거. 따라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상영관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멀티플렉스의 관객수와 매출액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은 CJ CGV(이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sup>20)</sup>의 총 3개이다. 전체 극장 중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수는 270개로 81.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79.6%보다 약 1.5% 상승하였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스크린 수는 2,072개로 전체 2,184개 스크린 가운데 94.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체인 극장을 제외한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은 8개 극장, 76개 스크린으로 2012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 메가박스와 씨너스는 2011년 합병했고, 명칭을 메가박스로 정했다.

<표 47> 2013년 3대 멀티플렉스 (단위 : 개)

구분			2012			2013													
			극장수	스크린 수	좌석수	극장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	스크린 수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	좌석 수	증감 수	전년대 비중감(%)	운영 형태				
															직영 극장수	직영 비중	위탁 극장수	위탁 비중	
멀티 플렉스	3대 멀티 플렉스	CGV	112	858	148,593	116	4	3.6%	901	43	5.0%	147,725	7,058	-0.6%	71	61%	45	39%	
		롯데 시네마	84	590	101,404	96	12	14.3%	657	67	11.4%	108,683	7,279	7.2%	64	67%	32	33%	
		메가 박스	54	403	67,229	58	4	7.4%	438	35	8.7%	70,891	3,662	5.4%	22	38%	36	62%	
		소계	250	1,851	317,226	270	20	8.0%	1,996	145	7.8%	327,299	10,073	3.2%	157	58%	113	42%	
	기타 멀티플렉스		13	116	23,030	8	-5	-38.5%	76	-40	-34.5%	13,751	-9,279	-40.3%	-	-	-	-	
	중계		263	1,967	340,256	278	15	5.7%	2,072	105	5.3%	341,050	794	0.2%	-	-	-	-	
비 멀티플렉스			51	114	18,403	55	4	7.8%	112	-2	-1.8%	8,619	-9,784	-53.2%	-	-	-	-	
극장 총계			314	2,081	358,659	333	19	6.1%	2,184	103	4.9%	349,669	-8,990	-2.5%	-	-	-	-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극장 상위 10위권은 모두 대기업 멀티플렉스가 차지했다.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CGV가 7개 극장, 롯데시네마가 2개 극장을 순위권에 올렸다. 작년 순위와 비교해보면 1위, 2위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으나 롯데시네마노원이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했으며 CGV죽전이 첫 10위권에 진입하면서 9위에 랭크되었다. 한편 지난해 9위였던 멀티플렉스 천안의 야우리시네마는 올해 10위 순위 밖으로 밀려나간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대기업 체인 멀티플렉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면서 관객동원력을 인정받고 있다.

<표48> 2013년 관객 동원 상위 10위권 극장 (단위 : 개)

순위	광역단체	지역단체	극장명	스크린 수	좌석 수
1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코엑스16	16	3,798
2	서울시	광진구	롯데시네마건대입구11	12	2,143
3	서울시	용산구	CGV용산11	11	2,215
4	경기도	수원시	CGV수원8	8	2,236
5	서울시	성동구	CGV왕십리10	10	1,846
6	서울시	영등포구	CGV영등포11	11	2,364
7	인천시	남동구	CGV인천14	14	3,390
8	서울시	노원구	롯데시네마 노원	10	1,758
9	경기도	용인시	CGV죽전8	8	1,819
10	대전시	중구	CGV대전9	9	1,715

## 5. 해외수출

한국영화 최대의 글로벌 프로젝트 <설국열차> 덕에 2013년은 완성작 해외수출액은 전년대비 83.7% 증가하여 3천7백만불을 넘어섰고, 중국권 대작영화 영상작업 수주 호조에 힘입어 기술서비스 수출액도 2012년보다 26.8% 늘어 2천2백만불에 달했다. 완성작 수출액과 기술서비스 수출액을 합한 2013년도 수출액은 총 5천9백만불 규모이다. 이는 전년 대비 57.2% 성장한 수치로, 내수시장과 더불어 해외 시장도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49> 연도별 해외수출액(완성작 수출액+기술서비스 수출액) 추이 (단위 : USD)

구 분	2011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3년	전년대비 증감률
완성작 수출액 (USD)	15,828,662	-	20,174,950	27.5%	37,071,445	83.7%
서비스분야 수출액 (USD)	19,041,163	-	17,649,854	-7.3%	22,388,411	26.8%
해외 매출 총액 (USD)	34,869,825	-	37,824,804	8.5%	59,459,856	57.2%

### 1) 완성작 수출 부문

2013년은 한국영화 최대의 글로벌 프로젝트 <설국열차>가 해외수출의 견인차가 된 한해였다. 국내 극장매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이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액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수출 호조와 더불어 <설국열차>라는 대작의 해외수출 성과를 통해 한국영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83.7% 상승했다. 독특한 장르 영화와 수준 높은 작가주의 영화, 젊은 스타를 앞세운 영화등 다양한 세계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한국영화에 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작영화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마켓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한 것이다.

2013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은 총 37,071,445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수출액인 20,174,950달러와 비교할 때 무려 83.7% 상승한 금액이다.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한 한국영화 수출액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3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설국열차> 한 편이 나머지 전체 한국영화의 수출액에 육박하는 액수를 기록하면서 한국영화 수출액 상승을 이끈 것이다. 한국영화 수출은 한류열풍을 타고 2005년 75,994,580달러의 정점을 찍은 후 오랜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다. 작품성과 상품성을 두루 겸비한 한국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설국열차>가 2013년에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한국영화의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이룬 가운데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완성작 수출 총액 가운데 단건으로 계약된 수출액은 34,156,895달러로 전년대비 141% 성장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존에 판매된 작품의 추가수익(overage)은 2,914,550달러로 2012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별계약>, <미스터 고> 등 공동제작 영화가 현지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정산이 끝나지 않아 2013년도 통계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현지에 직배된 한국영화의 수익이 2013년 통계수치상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지에서 직접 배급되는 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한국영화 사업전반은 안정화되어가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50> 연도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액 추이 (단위 :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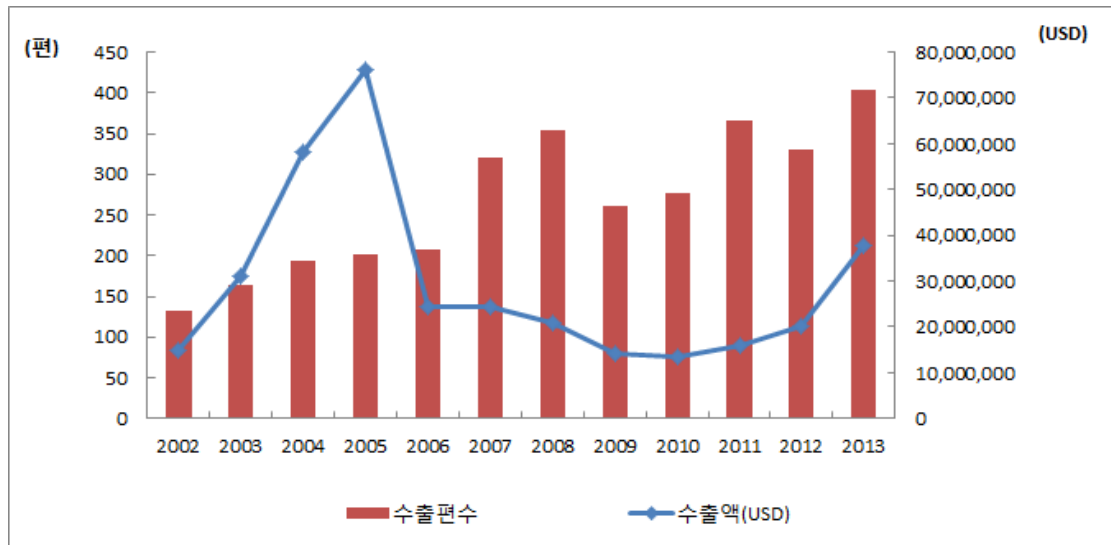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해외매출 총액	58,284,600	75,994,580	24,514,728	24,396,215	21,036,540	14,122,143	13,582,850	15,828,662	20,174,950	37,071,445
계약금액 (MG+Flat+기타)	58,284,600	75,994,580	24,514,728	12,283,339	20,541,212	13,930,262	13,166,280	14,815,146	14,170,390	34,156,895
추가수익 (Overage)	-	-	-	12,112,876	495,328	191,881	416,570	1,013,516	6,004,560	2,914,550
전년 대비 증감률	88.14%	30.39%	-67.74%	-0.48%	-13.77%	-32.87%	-3.82%	16.53%	27.46%	83.7%
수출 편수(편)*	194	202	208	321	361	251	276	366	331	403
평균 수출가**	300,436	376,211	117,859	38,266	56,901	55,499	47,704	40,479	42,811	84,756

\* 수출 편수에는 추가수익(Overage) 발생 작품 수는 포함하지 않음. 30편 이상의 단편영화 패키지 판매 건은 판매계약 1건을 1편으로 계산함.

\*\* 평균 수출가 = 계약금액 / 수출 편수

2013년 한국영화 수출 편수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403편이었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한국영화의 평균 수출가는 84,756달러로 2012년의 42,811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나 ‘<설국열차> 효과’로 인한 평균값의 상승분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수출 금액은 4만 달러 선에서 크게 변동이 없거나 조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 연도별 한국영화 수출 편수 · 수출액 추이



한국영화 최대 수출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 비중은 2012년 71.6%에서 2013년 46.3%로 줄었음에도 수출액은 2,721,339달러(18.8%) 늘었다. <동창생>, <결혼전야>, <노브레싱> 등 아이돌 스타들을 앞세운 영화들의 수출 성과가 돋보였으며 봉준호 감독이 제작을 맡고 인기그룹 JYJ의 박유천이 캐스팅되어 화제가 된 <해무>는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에 일본에 판권이 판매됐다. 국내 시장에서의 홍보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돌 배우들의 한국영화 출연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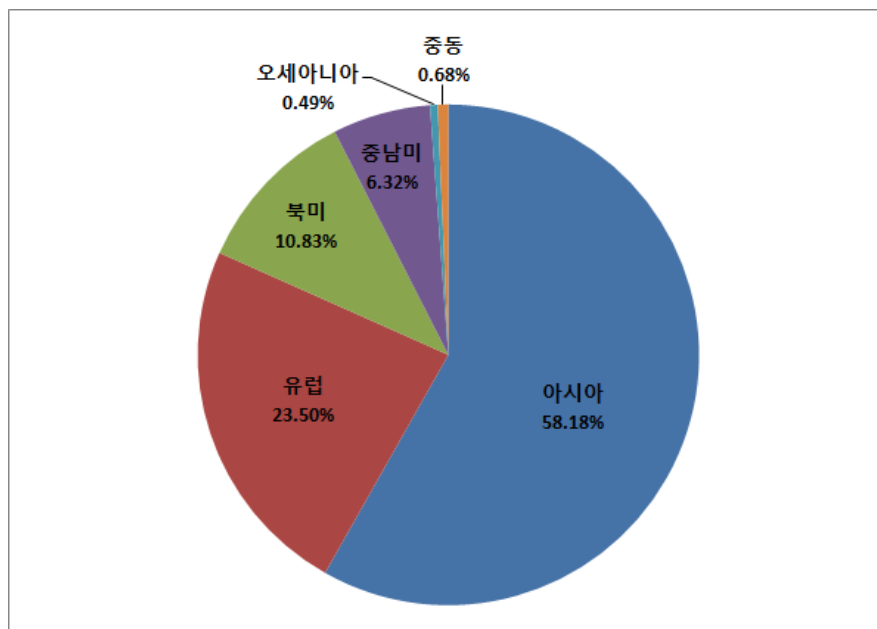
<표51> 2012 vs 2013 권역별 수출실적

권역	수출액(USD)				전년대비 증감률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아시아	14,439,757	71.6%	17,161,096	46.3%	18.8%
유럽	2,455,745	12.2%	6,931,734	18.7%	182.3%
북미	2,872,752	14.2%	3,193,230	8.6%	11.2%
중남미	233,500	1.2%	1,864,863	5.0%	698.7%
오세아니아	134,196	0.7%	144,822	0.4%	7.9%
중동	39,000	0.2%	200,700	0.5%	414.6%
기타	-	-	7,575,000	20.4%	100.0%
계	20,174,950	100%	37,071,445	100%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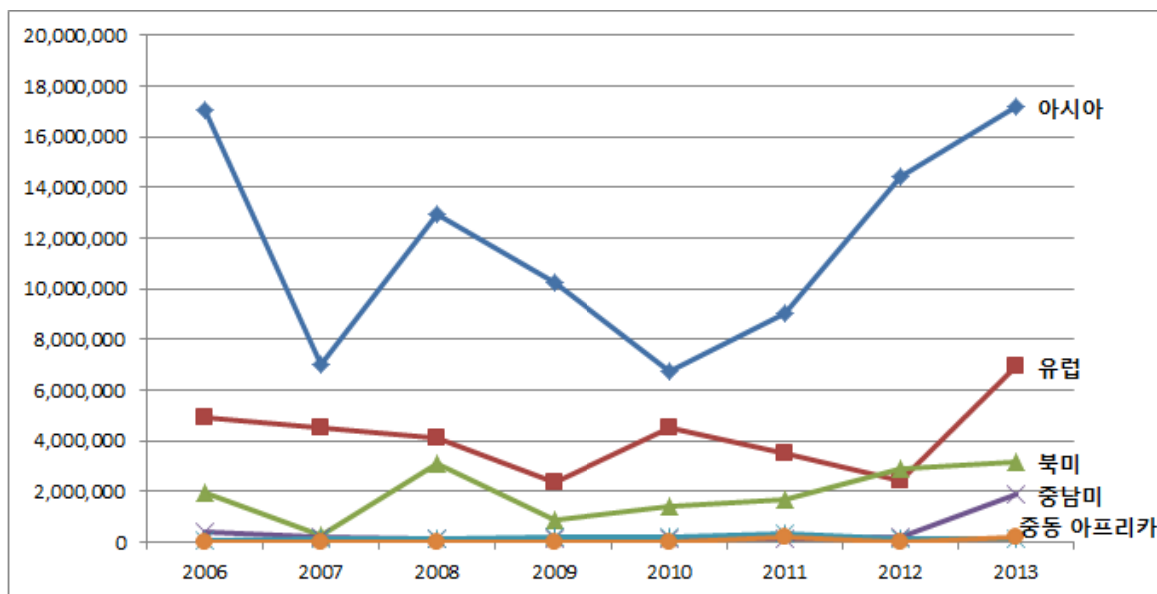
유럽지역 수출액은 2012년에 비해 182.3% 상승했다. 이는 <설국열차>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지역 대부분에 판매된 성과가 반영된 바가 크다. 이외에도 <해무>, <화이>, <신세계> 등 색깔이 뚜렷한 작품들이 유럽지역 바이어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우리 선희>의 홍상수 감독을 제외하면 감독의 이름이 돋보이는 작가주의 계

열로 주목을 받은 작품은 찾기 어려웠다. 한편, 중남미, 중동 지역에서도 <설국열차>의 수출로 인해 전체금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림 10> 2013년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액 비중



<그림 11> 연도별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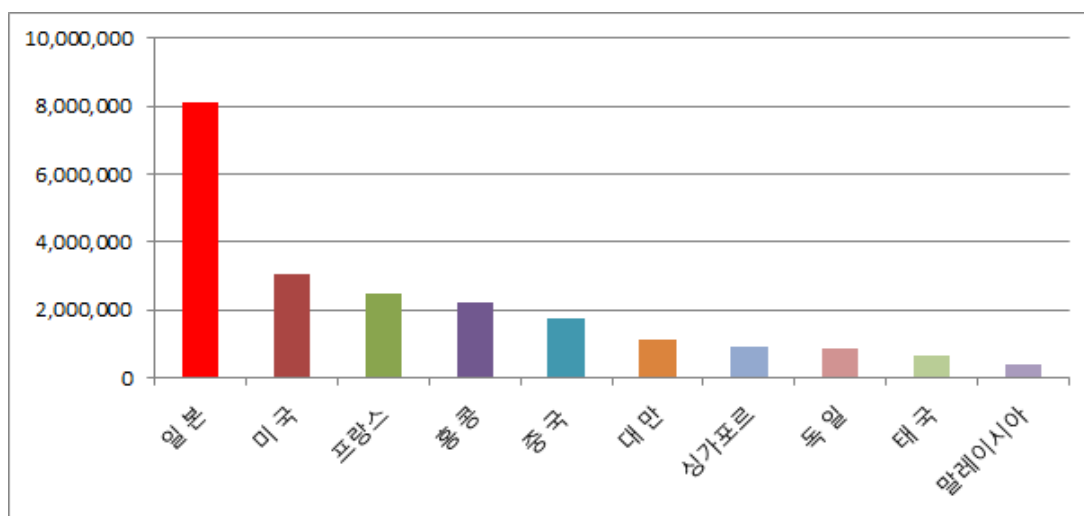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지역 한국영화 수출액은 USD 8,085,102로, 2012년보다 16.5% 감소했고,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도 21.8%로 크게 줄어든 모양새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 국내 영화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일본 바이어들을 끌어당길만한 작품이 전년도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엔저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영화의 수익 매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다.

<표52> 2012 vs 2013년도 주요 10개국 한국영화 수출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USD)	비중	수출액 (USD)	비중	
일 본	9,679,008	48.0%	8,085,102	21.8%	-16.5%
미 국	2,341,685	11.6%	3,040,243	8.2%	29.8%
프랑스	1,175,300	5.8%	2,452,632	6.6%	235.6%
홍 콩	832,700	4.1%	2,208,540	6.0%	87.9%
중 국	730,809	3.6%	1,757,100	4.7%	111.0%
대 만	581,908	2.9%	1,123,000	3.0%	175.4%
싱가포르	500,000	2.5%	915,145	2.5%	57.3%
독 일	407,794	2.0%	879,700	2.4%	169.2%
태 국	331,892	1.7%	663,000	1.8%	32.6%
말레이시아	326,773	1.6%	413,600	1.1%	-1.7%
기 타	3,267,081	16.2%	15,533,383	41.9%	388.8%
합 계	20,174,950	100.00%	37,071,445	100.0%	83.7%

<그림 12> 2013년 주요 10개국 한국영화 수출액 분포 (단위: USD)



2013년에도 일본에 이어 미국 지역의 수출액이 많았다. 미국 지역 수출액은 3,040,243달러로 2012년 대비 29.8% 상승하였고,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은 8.2%를 차지했다. 미국배급사인 WELL



GO USA를 통해 <신세계>, <동창생>, <내가 살인범이다>등 장르영화들이 판매되면서 수출액 상승을 이끌었고, <신세계>는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하는 등 활약이 돋보였다. 홍콩으로의 수출은 기내 판권을 주로 다루는 업체들의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수출액이 올랐다.<sup>21)</sup>

프랑스에는 <설국열차>와 <해무>가 봉준호 감독의 지명도를 등에 업고 판매되면서 수출액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인터넷 VOD 판권이 대거 판매되면서 중국지역 수출액이 87.9% 상승했다. 중국에 극장 판권을 판매하기 힘든 현실에서 인터넷 VOD 판권을 중심으로 한 판매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3년에는 공동제작 영화인 <이별계약>, <미스터고>등이 현지에서 괄목할 만한 극장 흥행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금번 수출금액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의 공동제작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에 공동제작을 통한 매출이 한국영화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대부분의 주요 수출국가로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3> 2012~2013년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 판권 유형 비교

계약 판권 종류	2012년		2013년	
	금 액(USD)	비 중	금 액(USD)	비 중
전판권(All Rights)*	11,910,501	59.0%	29,181,512	78.7%
부가 판권**	1,204,825	6.0%	4,340,220	11.7%
리메이크	1,010,000	5.0%	1,000,000	2.7%
극장 개봉 판권	294,839	1.5%	555,860	1.5%
기 타***	5,754,785	28.5%	1,993,853	5.4%
합 계	20,174,950	100.0%	37,071,44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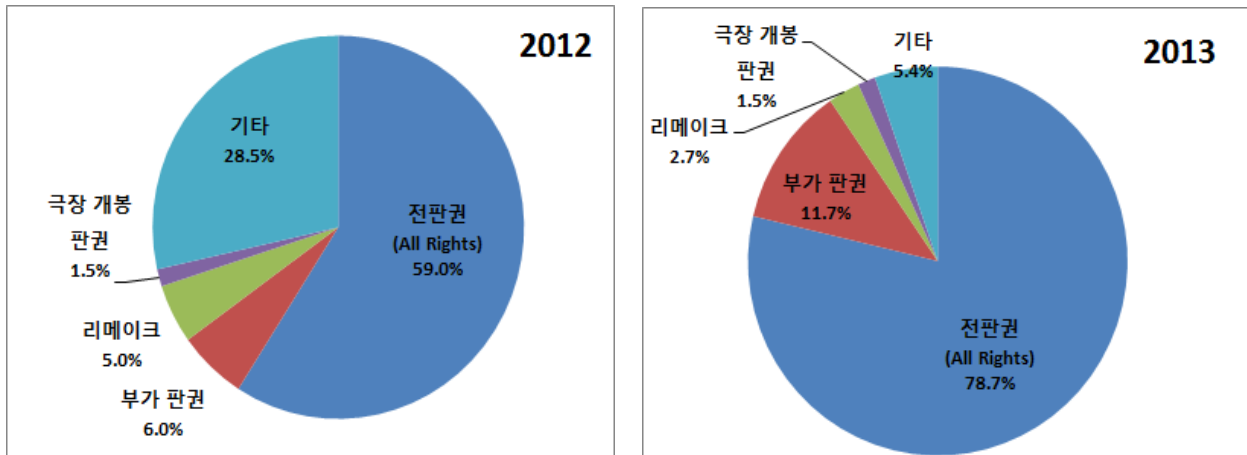
\* 전판권(All Rights) 계약 중 일부 별도 조건부 계약건도 함께 포함하였음.

\*\* 부가판권은 비디오, DVD/Blu-Ray, VOD, 인터넷, PPV, 기내판권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였음.

\*\*\* 기타부문은 해외직배수익, 공공목적 판권 판매수익 등을 포함함.

21) 기내판권은 주로 세계전역을 커버하지만 본 통계에서는 해당판권이 판매된 업체의 국가로 한정하여 집계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13> 2012년, 2013년 한국 영화 완성작 수출 계약 세부 유형 분포 (단위: USD)



판권 유형으로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극장 개봉, 부가판권을 모두 포함한 전판권(All Rights) 계약의 금액 비중이 78.7%로 2012년보다 상승했다. 판매단가가 안정화되는 한편, 온라인 부가시장의 발전으로 판권분류가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판권을 나누어서 판매하기 보다는 한 번에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전판권 계약이 계속해서 늘고 추세다.

## 2) 서비스 수출 부문

2013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 수출 실적을 종합하면 VFX업체의 활발한 중국 시장 진출이 돋보였던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서비스 분야 총 수출 실적은 2010년 첫 조사 이래 최대 증가폭(전년 대비 26%)을 기록하였다. 올해 한국영화 서비스 수출 부문의 실적 조사는 총 5개 분야(VFX·DI/ 3D·3D컨버팅/ 사운드믹싱/기타/ 외국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2013년도에 해외 수주 실적이 있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시 국내에서 집행한 제작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영상위원회와 부산영상위원회도 조사에 포함했다. 수주 실적이 예상되나 금액을 밝히지 않은 업체는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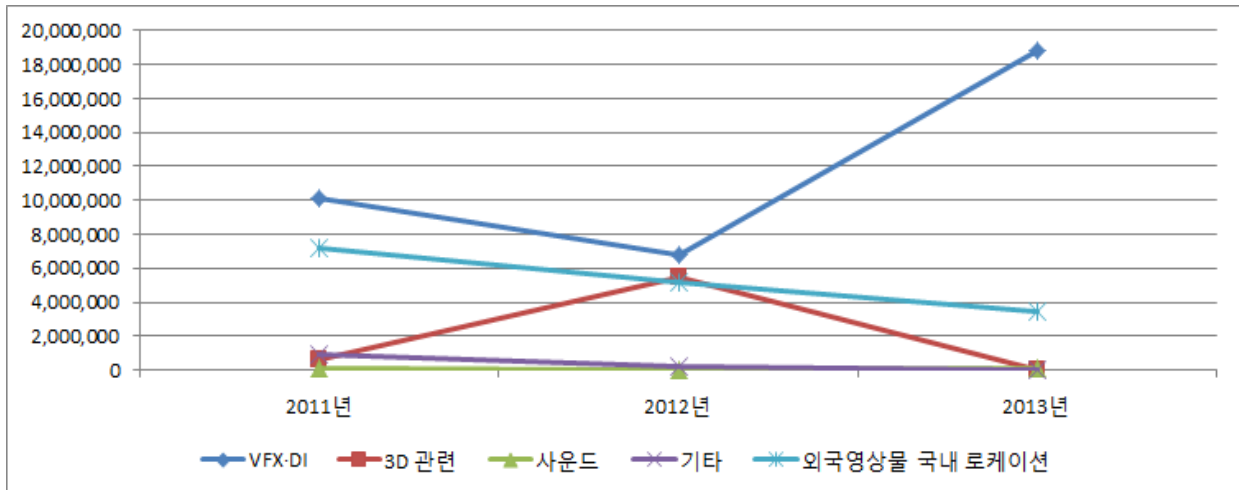
<표54> 2011년~2013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현황 비교 (단위:USD)

서비스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수주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VFX·DI	10,125,071	53.2%	6,763,300	38.3%	18,845,429	84.0%
3D 관련	664,300	3.5%	5,460,000	30.9%	-	-
사운드	145,891	0.8%	51,700	0.3%	89,000	0.4%
기타 (특효, 무술 등)	886,583	4.7%	225,570	1.3%	16,500	0.1%
외국영상물 국내로케이션*	7,219,318	37.9%	5,149,284	29.2%	3,472,482	15.5%

서비스 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수주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수주금액	비중
합 계	19,041,163	100%	17,649,854	100.0%	22,388,411	100%
전년대비 증감률	-33.5%		-7.3%		26.8%	

※ 외국영상물이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할 경우, 국내에서 집행한 금액임.

<그림 14> 2011~2013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추이 (단위: USD)



2013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별 수주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수주금액은 총 22,388,411 달러이며, 전체 37건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계약 건수는 2012년에 비해 감소했으나(54건 → 37건), 금액으로만 본다면 26%증가해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규모 계약 건수가 많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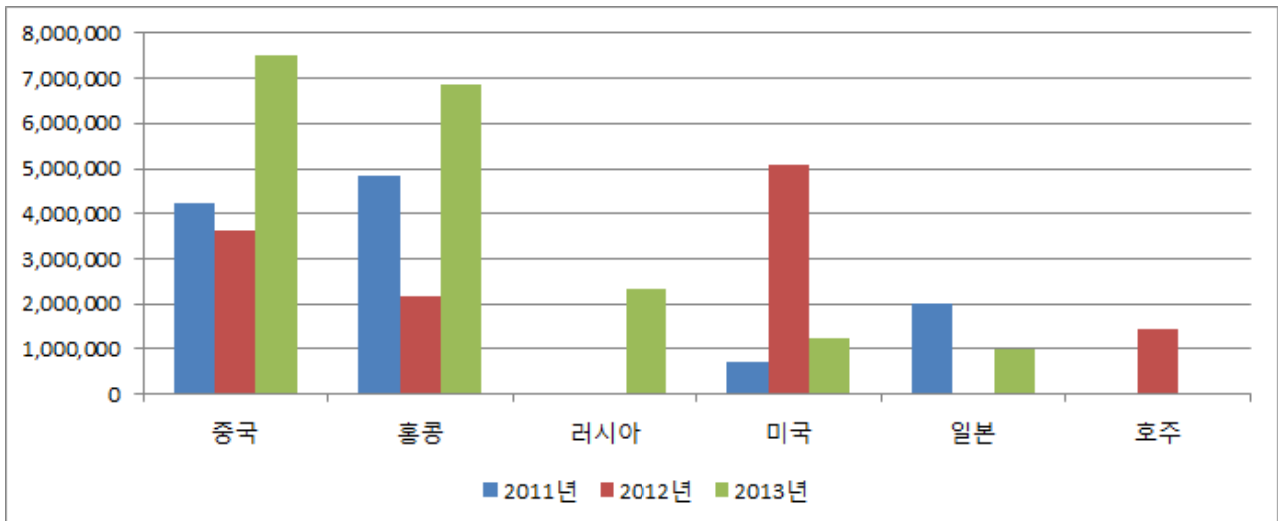
분야별로 살펴보면 VFX·DI부문 수주금액이 84.0%를 차지해 전체 수치 상승에 기여했다. 중국에서 시대극을 비롯한 대규모 영화 제작이 활성화되어 가격 대비 질이 좋은 한국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D·3D컨버팅분야는 2010년 당시 3D 시장의 활성화로 서비스 분야 수출 실적의 75%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수출 실적이 집계되지 못했다. 수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수 업체들이 내부사정으로 영세화되어 수출이 불가능 하게 된 점, 가격경쟁력에서 동남아 업체들에 밀리게 된 점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효과, 특수분장, 무술·스턴트, 사운드믹싱 부문의 수주금액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화, 드라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이 국내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55> 2011 ~ 2013년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텝 국가별 수주 현황 (단위: USD)

권역	국가	2011		2012		2013	
		금액(USD)	비중	금액(USD)	비중	금액(USD)	비중
아시아	중국	4,241,572	35.9%	3,642,180	29.1%	7,519,493	39.7%
	홍콩	4,850,938	41.0%	2,190,000	17.5%	6,849,346	36.1%
	일본	2,016,938	17.1%	28,575	0.2%	1,004,100	5.3%
	대만	-	-	123,490	1.0%	-	-
	말레이시아	6,097	0.1%	-	-	-	-
	카자흐스탄	-	-	-	-	27,000	0.1%
북미	미국	706,300	6.0%	5,075,325	40.6%	1,224,990	6.5%
유럽	러시아	-	-	-	-	2,326,000	12.3%
오세아니아	호주	-	-	1,441,000	11.5%	-	-
합계		11,821,845	100.0%	11,059,570	100.0%	18,950,929	100.0%

<그림 15> 2011~2013년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텝 국가별 수주 추이 (단위: USD)



서비스 분야 수출은 VFX, 3D, 사운드믹싱, 특수효과 등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텝의 해외작품 수주와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집행 유치 금액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한국영화 후반업체 및 제작스텝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주 금액이 18,950,929달러로 2012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중국 시장 수출이 200% 이상, 홍콩 시장 수출이 300% 이상 증가하는 등 올해 중국 대작 2편의 수주가 성사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의 경우 스크린의 폭발적인 증가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여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시장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높아졌다. 미국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등 인접 국가 대비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대작 수주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밖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외국영상물 국내로케이션 유치에 따른 국내집행금액은 2011년부터 집계되었는데 2013년은 3,427,482달러로 2012년에 비해 약 32% 감소하였다. 집계에 있어 국내의 영상위원회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국내에서 집행한 금액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올해 집계액의 경우 위원회로부터 직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실제로 한국 로케이션 촬영을 했다고 집계된 편수는 작년 19편 → 27편으로 증가) 총 집행금액의 감소보다는 지역별 집행금액의 비중을 살피는 것이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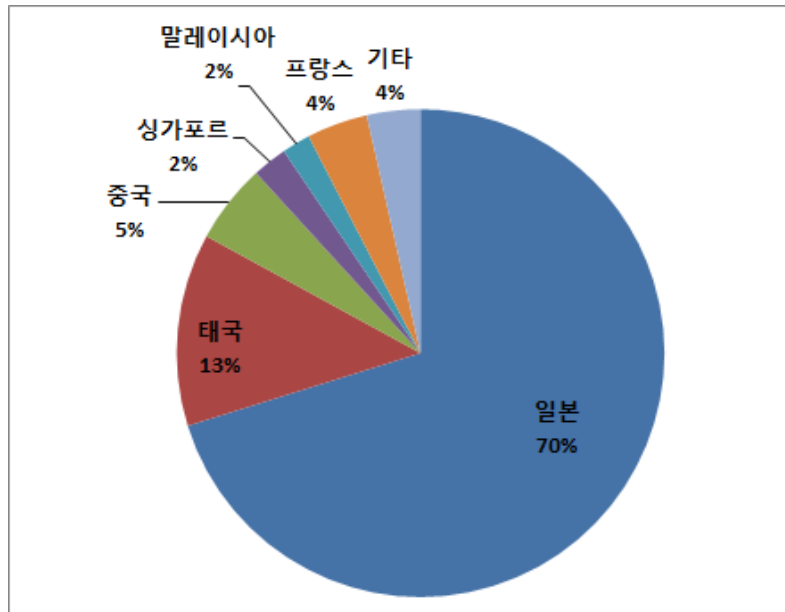
<표56> 2011-2013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단위: USD)

권역	지역	2011		2012		2013	
		집행금액 (USD)	비중	집행금액(USD)	비중	집행금액(USD)	비중
아시아	일본	5,930,244	82.1%	919,038	17.8%	2,412,497	70.3%
	태국	-	-	-	-	439,074	12.8%
	중국	1,053,501	14.6%	2,312,865	44.9%	181,173	5.2%
	싱가포르	-	-	110,775	2.2%	79,124	2.3%
	말레이시아	185,472	2.6%	54,998	1.1%	64,860	1.8%
	필리핀	50,101	0.7%	92,979	1.8%	-	-
	인도네시아	-	-	454,473	8.8%	-	-
유럽	프랑스	-	-	23,473	0.5%	138,822	4%
	기타	-	-	115,015	2.2%	121,933	3.5%
북미	미국	-	-	1,065,668	20.7%	-	-
합계		7,219,318	100.0%	4,083,616	100.0%	3,427,482	100.0%

\*출처: 서울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역별 비중을 보면 일본이 2011년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 중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대작 1편의 로케이션 촬영에 기인한 것으로 일본 작품의 집행금액 비중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유럽 작품의 약진으로 전체 비중의 7.5%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K-POP의 유행에 따라 극영화 외에 다양한 한국문화 관련 TV쇼 촬영이 활발해진 때문이다. 태국도 비중이 늘었으나 이 역시 대작 드라마 1편(<풀하우스>)의 한국 로케이션 촬영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치 증가로 보인다.

<그림 16> 2013년 외국 영상물 국가별 한국 로케이션 유치 비중 (단위: USD)



2013년 한국영화 서비스 분야의 실적 조사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2012년보다 26% 증가하였다. 이는 VFX 업체들의 활발한 중국 시장 진출 때문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봤을 때는 VFX부문 중국(홍콩 포함) 시장 진출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로케이션 수출도 예년보다 지역 · 장르면에서 다양해지고 있어 대작 몇 편에 의존했던 예년보다 안정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Ⅲ. 결 론 -공정한 창작·제작환경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가와 작품을 기다리며

2013년은 한국영화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해였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침체기를 거치면서 치밀한 기획, 효율적 제작 시스템이 확립된 결과이다. 아마도 이러한 호황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한국 영화인들의 추측이다.

지금의 호황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체, 개인창작자 및 스태프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영화산업 환경을 만들고, 최근 비약하고 있는 부가시장의 성과물을 창작-제작-투자-플랫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도에는 상영표준계약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스태프근로표준계약서 등의 표준계약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역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상영, 스태프, 시나리오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범 영화업계 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제작사, 투자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점이 중요하다. 출발점에 선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획개발지원사업, 적립식제작지원 수혜작에는 반드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향후 결성되는 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작품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향후 개선을 위한 산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IPTV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부가시장 성장의 과실이 작품 제작, 투자, 배급, 플랫폼 등 관련된 모든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근간으로서 극장시장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과 같이 디지털 부가시장 유통작에 대한 매출집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소위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영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웰메이드 기획 장르영화에 더해 작가주의 영화 작품의 등장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홍상수, 김기덕, 이창동, 박찬욱 세대 이후에는 칸, 베를린, 베니스 등 영화예술 작가를 발굴하는 주요 국제영화제의 경쟁부문에 초청된 감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00대 중반까지 해외 영화평단과 바이어들은 한국영화의 활력과 역량의 근원으로 예술적으로 창작된 영화가 극장에서도 대중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총괄 책임]

정책연구부장 김보연(051-720-4820, soomam@kofic.or.kr)

[집필]

1. 극장흥행 : 정책연구부 김현수 (051-720-4827, myear@kofic.or.kr)  
다양성 영화 : 정책연구부 박희성 (051-720-4827, heedong21@kofic.or.kr)
2. 디지털 온라인 시장 : 정책연구부 박주영 (051-720-4822, demian@kofic.or.kr)  
    직원연구원 김성희 (heemetal@naver.com)
3. 한국영화 제작비와 투자수익성 : 정책연구부 윤 하 (051-720-4821, ducer@kofic.or.kr)
4. 전국 극장 및 멀티플렉스 : 정책연구부 박주영 (051-720-4822, demian@kofic.or.kr)
5. 해외수출 : 국제사업부 김경만 (051-720-4799, wave@kofic.or.kr)  
    국제사업부 최지원 (051-720-4794, choi@kofic.or.kr)



## 2013년 한국영화 개봉상영 일람

순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스크린수	전국매출액 (2012년 매출 포함)	전국관객수 (2012년 관객 포함)	구분
이월1	두 개의 문	김일란, 홍지유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주)시네마달	2012-06-21	15세	18	504,338,000	73,541	다양성
이월2	남쪽으로 간다	이송희일	(주)시네마달	(주)시네마달	2012-11-15	청불	11	10,532,250	2,877	다양성
이월3	광해, 왕이 된 남자	추창민	리얼라이즈픽쳐스(주),씨제이이엔엠(주)	씨제이이엔엠(주)	2012-09-13	15세	810	88,900,208,769	12,319,542	일반
이월4	하나안	박루슬란	(주)영화사 자미,플라잉타이거픽쳐스	(주)인디스토리	2012-10-11	청불	12	7,471,400	1,020	다양성
이월5	바비	이상우	(주)인디컴미디어	(주)마로비전	2012-10-25	청불	24	17,507,500	2,378	다양성
이월6	늑대소년	조성희	(주)영화사비단길	씨제이이엔엠(주)	2012-10-31	15세	706	46,593,107,500	6,654,837	일반
이월7	가족시네마	신수원,이수연,김성호	(주)수필름,포디렉터스	골든타이드픽쳐스(주)	2012-11-08	15세	12	19,453,000	2,639	다양성
이월8	내가 살인범이다	정병길	(주)다세포클립,쇼박스쥬미디어플렉스	쇼박스쥬미디어플렉스	2012-11-08	청불	547	20,392,346,000	2,729,808	일반
이월9	백야	이송희일	(주)시네마달	(주)시네마달	2012-11-15	청불	19	44,275,000	6,075	다양성
이월10	내가 고백을 하면	조성규	(주)영화사 조제,(주)스폰지이엔티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2-11-15	15세	37	91,430,000	11,969	다양성
이월11	돈 크라이 마미	김용한	(주)씨네마글뱅이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2012-11-22	15세	444	6,808,882,099	975,462	일반
이월12	철가방 우수氏	윤학렬	(주)대길이에스	씨제이이엔엠(주)	2012-11-22	12세	119	604,032,500	92,404	다양성
이월13	사이에서	어일선,민두식	(주)씨타도시공간,영화사 민들레	(주)마운틴픽쳐스,영화사 민들레	2012-11-22	청불	6	3,184,500	582	다양성
이월14	범치소년	강이관	국가인권위원회,(주)영화사 남원	타임스토리그룹(주)	2012-11-22	15세	56	82,327,800	11,868	다양성
이월15	반드시 크게 들을 것 2 : Wild Days	백승화	(주)인디스토리,러브락컴퍼니	(주)인디스토리	2012-11-22	12세	16	14,639,800	1,999	다양성
이월16	개들의 전쟁	조병옥	(주)영화사얌16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1-22	청불	94	171,302,571	23,390	다양성
이월17	남영동1985	정지영	(주)아우라픽쳐스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주)엠티인필름	2012-11-22	15세	310	2,358,629,601	332,619	다양성
이월18	26년	조근현	영화사청어람(주)	(주)인베스트스톤,영화사 청어람(주)	2012-11-29	15세	604	21,241,327,145	2,963,449	일반
이월19	도둑들	최동훈	(주)케이퍼필름	쇼박스쥬미디어플렉스	2012-07-25	15세	1,072	93,665,568,500	12,983,330	일반
이월20	도다리 - 리덕스	박준범	야간비행	야간비행	2012-11-29	15세	2	1,213,000	222	다양성
이월21	나의 PS 파트너	변성현	나의PS파트너 문화산업전문회사	씨제이이엔엠(주)	2012-12-06	청불	552	13,896,872,616	1,831,725	일반
이월22	영화판	허철	(주)아우라픽쳐스,엔터시네마	(주)마운틴픽쳐스	2012-12-06	12세	10	10,312,500	1,549	다양성
이월23	늑대소년-확장판	조성희	(주)영화사비단길	씨제이이엔엠(주)	2012-12-06	15세	278	2,868,302,500	414,083	일반
이월24	차이나 블루	김건	(주)CMG초록별,엔에프통상	프로젝트 엠피	2012-12-13	청불	3	3,666,400	482	다양성
이월25	반창고	정기훈	(주)영화사오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2-12-19	15세	466	17,911,274,787	2,475,797	일반
이월26	가문의 영광5 - 가문의 귀환	정용기	(주)태원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012-12-19	15세	447	8,330,342,500	1,160,021	일반
이월27	타워	김지훈	씨제이이엔엠(주),(주)더타워픽쳐스	씨제이이엔엠(주)	2012-12-25	12세	617	37,654,858,000	5,181,014	일반
이월28	플라스틱 섹스	이송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2-26	청불	1	280,000	40	일반
이월29	전망좋은해변-두여자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2-12-26	청불	1	260,000	40	일반
1	누나	이원식	영화제작소 정감	어뮤즈	2013-01-03	15세	14	11,874,200	1,603	다양성
2	오하이오 샷포로	김성준		어뮤즈	2013-01-03	전체	1	1,429,000	287	다양성
3	박수건달	조진규	주식회사 제이엔피,박수건달문화산업전문(유),쇼박스쥬미디어플렉스	쇼박스쥬미디어플렉스	2013-01-09	15세	599	28,343,986,569	3,893,216	일반
4	마이 리틀 히어로	김성훈	굿초이스컷픽쳐스(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01-09	전체	341	1,286,203,128	183,650	일반
5	베드	박철수	씨네힐	(주)마운틴픽쳐스	2013-01-17	청불	9	4,186,000	606	다양성
6	배꼽	박보상	(주)태원엔터테인먼트,지오엔터테인먼트	타임스토리그룹(주)	2013-01-17	청불	1	300,000	50	일반
7	7번방의 선물	이환경	(주)화인웍스,(주)씨엘엔터테인먼트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01-23	15세	787	91,429,295,670	12,810,776	일반
8	보로로 극장판 슈퍼별대 대모험	박영균	(주)오콘,중국오락문화투자유한회사	씨제이이엔엠(주)	2013-01-23	전체	459	6,819,979,500	929,985	일반
9	나비와 바다	박배일	오지필름	(주)시네마달	2013-01-24	12세	13	7,456,000	1,235	다양성

순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스크린수	전국매출액 (2012년 매출 포함)	전국관객수 (2012년 관객 포함)	구분
10	베를린	류승완	(주)와유내강,씨제이이엔엠(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01-30	15세	894	52,354,771,637	7,166,177	일반
11	그 여자 그 남자의 속사정	이윤희	모티브 필름	어뮤즈	2013-01-31	15세	5	3,747,000	539	다양성
12	물고기	박홍민	디마엔터테인먼트	㈜미로비전	2013-01-31	15세	4	4,558,000	504	다양성
13	반달곰	이정홍		(주)인디스토리	2013-02-04	15세	1	1,197,000	322	다양성
14	남쪽으로 튀어	임순례	(주)영화사거미,필름트레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2-06	15세	428	5,970,851,500	832,894	일반
15	남자사용설명서	이원석	(주)영화사소풍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3-02-14	15세	372	3,606,428,257	507,881	일반
16	굿바이 홀런	이정호	소울다큐	시네마달	2013-02-14	전체	7	13,659,400	2,057	다양성
17	볼륨의 시대	전규환	트리필름	(주)키노아이드엠씨	2013-02-14	청불	4	11,521,700	1,933	다양성
18	참을 수 없는 성적유기 감독판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2-15	청불	1	150,000	10	일반
19	신세계	박훈정	(주)사나이픽처스,페퍼민트 엔터테인먼트,(주)기인컬처테인 먼트,(주)파트너스케이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3-02-21	청불	671	34,880,882,905	4,682,418	일반
20	분노의 율리학	박명량	(주)티피엑스컴퍼니,(주)사람 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2-21	청불	302	1,658,653,000	225,618	일반
21	1999, 면회	김태곤	광화문시네마	(주)인디스토리	2013-02-21	15세	20	23,511,300	3,338	다양성
22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홍상수	(주)영화제작전원사	(주)영화제작전원사 (주)영화사 조제	2013-02-28	청불	35	268,878,400	34,876	다양성
23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이재용	주식회사 몽클픽쳐스,위더스필름(주)	필라멘트픽쳐스	2013-02-28	12세	39	38,535,100	5,284	다양성
24	사이코메트리	권호영	(주)미라클필름,(주)파워이 엔티,(주)게이트픽쳐스	씨제이이엔엠(주)	2013-03-07	청불	429	3,978,107,129	534,176	일반
25	키스	강호준,김 진희,황희 성,서용호, 문인대,이 정원,김두 현	(주)스푸키번치	(주)마노엔터테인먼트	2013-03-07	청불	2	6,011,000	722	다양성
26	파파로티	윤종찬	케이엠컬처(주)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3-03-14	15세	552	11,825,934,000	1,716,429	일반
27	미스진은 예쁘다	장희철	문화예술사업단 BIKI	어뮤즈	2013-03-14	12세	17	14,599,500	2,086	다양성
28	설인	이사무엘	한국영화아카데미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주)	2013-03-14	청불	6	7,404,500	988	다양성
29	누구나 제 명예 죽고 싶다	김승현	한국영화아카데미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주)	2013-03-14	청불	7	4,027,500	517	다양성
30	연애의 온도	노덕	(주)뱅크스튜디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3-21	청불	567	13,798,864,446	1,865,195	일반
31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2	오명	자파리필름,설문대영상	(주)영화사 진진	2013-03-21	15세	81	986,098,100	143,715	다양성
32	소명 하늘의 별	신현원	신현원프로덕션	(주)에스피엠	2013-03-21	12세	33	75,082,000	11,666	다양성
33	생생활활	박철수	(주)캔들미디어,(주)프리콤 프로덕션	팝엔터테인먼트	2013-03-21	청불	4	2,343,000	294	다양성
34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이두용,박 철수,정지 영,이창호	마스터 클래스의 산책 제작위원회	(주)마운틴픽쳐스	2013-03-21	15세	5	1,316,000	222	다양성
35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초록의 공명(주)시네마달	(주)시네마달	2013-03-28	전체	17	71,055,900	10,942	다양성
36	좋은친구들	진형태	주니파워픽쳐스(주),판타지 웍스엔터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3-03-28	청불	15	9,709,500	1,258	일반
37	비념	임흥순	반달,볼	(주)인디스토리	2013-04-03	15세	22	15,081,200	2,182	다양성
38	런닝맨	조동오	(주)크리픽쳐스,이십세기 스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이십세기픽스코리아(주)	2013-04-04	15세	567	10,060,239,500	1,422,844	일반
39	끝과 시작	민규동	(주)수필름,(주)데이지엔터 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4-04	청불	185	274,338,000	38,735	다양성
40	전설의 주먹	강우석	(주)시네마서비스	씨제이이엔엠(주)	2013-04-10	청불	724	12,777,314,500	1,744,585	일반
41	노리개	최승호	(주)마운틴픽쳐스	(주)인벤트스톤	2013-04-18	청불	278	1,229,574,500	169,054	일반
42	공정사회	이지승	시네마팩토리	(주)옛나인필름	2013-04-18	청불	37	97,516,000	14,482	다양성
43	왕자가 된 소녀들	김혜정	문화기획집단 영희아놀자	문화기획집단 영희아놀자	2013-04-18	전체	2	9,782,200	1,640	다양성
44	태아 3D	표만석	KBS 미디어	(주)팝엔터테인먼트	2013-04-18	전체	7	8,309,500	712	다양성
45	마지막 중독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4-19	청불	1	150,000	30	일반
46	전국노래자랑	이종필	(주)인앤인픽쳐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5-01	12세	581	6,685,476,000	977,873	일반
47	이티피 페스티벌 08X09 서태지	서태지	(주)서태지컴퍼니	(주)서태지컴퍼니	2013-05-03	전체	1	26,632,000	2,764	일반
48	고령화 가족	송해성	(주)인벤트스톤	씨제이이엔엠(주)	2013-05-09	15세	583	8,169,492,153	1,141,222	일반
49	몽타주	정근섭	(주)미인픽쳐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2013-05-16	15세	540	15,002,458,500	2,095,592	일반

순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스크린수	전국매출액 (2012년 매출 포함)	전국관객수 (2012년 관객 포함)	구분
50	미나문방구	정익환	(주)별의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5-16	전체	385	2,247,017,000	334,323	일반
51	환상속의 그대	강진아	크라켄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주)	2013-05-16	청불	32	53,202,700	7,482	다양성
52	어디로 갈까요?	진승현	(주)진진엔터테인먼트필름	(주)마운틴픽처스	2013-05-16	청불	4	2,231,000	340	다양성
53	길위에서	이창재	(주)비트원픽처스	(주)영화사 백두대간	2013-05-23	전체	23	359,709,500	53,230	다양성
54	춤추는 숲	강석필	감어인 필름	스튜디오오림보	2013-05-23	전체	11	57,729,000	8,417	다양성
55	창녀의 성적유히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5-29	청불	1	150,000	10	일반
56	뜨거운 안녕	남택수	(주)홍필름(주)수필름	(주)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2013-05-30	12세	172	315,291,000	47,105	일반
57	잠 못 드는 밤	장건재	모쿠슈라	(주)인디스토리	2013-05-30	청불	18	14,021,300	2,028	다양성
58	콘돌은 날아간다	전수일	(주)동넉필름	(주)마운틴픽처스	2013-05-30	청불	9	8,086,900	1,199	다양성
59	은밀하게 위대하게	장철수	(주)엠씨엠씨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3-06-05	15세	1,341	48,700,887,413	6,959,083	일반
60	무서운 이야기 2	정범식	(주)수필름(주)데이지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6-05	15세	337	3,393,667,500	495,522	일반
61	마이 라티마	유지태	(주)유무비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6-06	청불	29	49,305,300	7,172	다양성
62	앵두야, 연애하자	정하린	프로덕션 LAS	(주)마운틴픽처스	2013-06-06	15세	9	21,830,700	3,154	다양성
63	닥터	김성홍, 김윤정, 배현지	(주)노마드필름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3-06-20	청불	163	495,574,500	68,312	일반
64	꼭두각시	권영락	골든타이드픽처스(주)	(주)인벤트스톤	2013-06-20	청불	134	227,941,500	31,713	일반
65	이별계약	오기환	씨제이이엔엠(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06-20	12세	63	127,378,500	17,782	일반
66	홀리	박병환	(주)프라이데이 엔터테인먼트	(주)액티브스엔터테인먼트	2013-06-20	15세	7	6,538,000	1,699	다양성
67	더 웹툰: 예고살인	김용균	(주)필마픽처스, (주)라인필름, 씨제이이엔엠(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06-27	15세	541	8,532,258,570	1,200,772	일반
68	힘내세요, 병헌씨	이병헌		(주)인디스토리	2013-06-27	15세	18	26,062,600	3,589	다양성
69	맛있는 섹스 - 인연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6-27	청불	1	50,000	25	일반
70	감시자들	조익석, 김병서	영화사 집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07-03	15세	949	39,371,354,179	5,506,770	일반
71	48미터	민백두	한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주)	2013-07-04	15세	35	101,214,000	13,118	일반
72	거짓말 섹스가 좋아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7-04	청불	1	50,000	25	일반
73	명왕성	신수원	(주)에스에이치필름, 준필름	(주)싸이더스에프엔에이	2013-07-11	15세	78	114,536,500	16,828	다양성
74	슈퍼피쉬 - 끝없는 여정	송웅달, 이지훈, 이기연	KBS	(주)마운틴픽처스(주)팝 엔터테인먼트	2013-07-11	전체	15	24,475,500	2,280	다양성
75	콩가네	남기웅	(주)이웃엔터테인먼트	(주)프리비전엔터테인먼트	2013-07-11	청불	3	5,451,500	755	다양성
76	경복	최시형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주)	2013-07-11	15세	1	4,157,200	547	다양성
77	미스터 고	김용화	(주)엑스터필름, (주)광대무변, (주)컨텐트아이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3-07-17	12세	840	9,324,028,000	1,326,852	일반
78	전망 좋은 차- 맛있는 섹스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7-17	청불	1	20,000	10	일반
79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박준기	마젠타필름	(주)마운틴픽처스	2013-07-18	전체	5	10,983,000	1,502	다양성
80	링	이진혁	파스텔글리프	(주)인디스토리	2013-07-25	12세	20	12,410,000	1,773	다양성
81	군사통제구역 팔이공지대	구모	허니필름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07-25	청불	3	5,950,000	813	다양성
82	더 테러 라이브	김병우	(주)씨네이천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07-31	15세	743	39,834,696,881	5,579,125	일반
83	설국열차	봉준호	(주)모호필름, 오퍼스픽처스(유)	씨제이이엔엠(주)	2013-08-01	15세	1,128	66,951,128,500	9,341,747	일반
84	노랑머리 - 플라스틱 섹스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8-01	청불	1	1,800,000	900	일반
85	은밀하게 위대하게 (확장판)	장철수	(주)엠씨엠씨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3-08-05	15세	5	34,327,500	4,738	일반
86	젊은 엄마	공자관	밀크픽처스	(주)엘로우필름	2013-08-06	청불	1	3,168,000	528	일반
87	슈퍼쇼 4 3D	유호진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3-08-08	전체	26	32,204,000	2,801	일반
88	죽지않아	황철민	씨네굿	씨네굿	2013-08-08	청불	9	10,231,700	1,422	다양성
89	러브 인 코리아	박제욱	프리포트	프리포트	2013-08-08	12세	4	974,000	167	다양성

순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스크린수	전국매출액 (2012년 매출 포함)	전국관객수 (2012년 관객 포함)	구분
90	숨바꼭질	허정	(주)드림캡처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08-14	15세	779	39,602,987,500	5,604,104	일반
91	감기	김성수	아이러브시네마,(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씨제이이엔엠(주)	아이러브시네마	2013-08-14	15세	806	21,783,151,000	3,118,847	일반
92	가자, 장미여관으로	신정균	드림로드,스크린조이	(주)팝파트너스	2013-08-14	청불	21	29,545,500	8,307	일반
93	허풍	공자관	밀크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08-14	청불	3	3,031,000	656	일반
94	그리고 싶은 것	권효	(주)빅픽처	(주)시네마달	2013-08-15	전체	23	30,514,800	4,859	다양성
95	렛 미 아웃	소재영,김창래	서울예술대학	(주)영화사 백두대간	2013-08-15	12세	10	7,600,000	1,024	다양성
96	가시꽃	이돈구	디케이필름프로덕션	(주)인디스토리	2013-08-22	청불	12	11,463,000	1,643	다양성
97	방독피	김곡,김선	(주)두엔터테인먼트	(주)두엔터테인먼트	2013-08-22	청불	2	3,305,000	529	다양성
98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이상화	(주)스냅소울	(주)스냅소울	2013-08-22	청불	1	1,000,000	200	일반
99	아티스트 봉만대	봉만대	골든타이드픽처스(주)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2013-08-29	청불	131	93,817,000	14,188	일반
100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	한상희	(주)컨텐츠로드	(주)팝엔터테인먼트	2013-08-29	청불	23	18,135,500	3,460	일반
101	우리들의 헤어졌던 여자친구	이광호	밀크픽처스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08-29	청불	4	2,889,000	599	다양성
102	관음 - 욕망의 유희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08-29	청불	2	490,000	205	일반
103	할매	김지곤	탁주'조합	탁주'조합	2013-08-29	15세	1	297,000	111	다양성
104	할매-시멘트정원	김지곤	탁주'조합	탁주'조합	2013-08-29	15세	1	297,000	111	다양성
105	스파이	이승준	(주)제이케이필름,씨제이이엔엠(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09-05	15세	785	24,508,067,305	3,435,596	일반
106	뫼비우스	김기덕	김기덕 필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09-05	청불	128	255,504,579	35,347	다양성
107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우	(주)아우라픽처스	(주)아우라픽처스	2013-09-05	12세	33	157,559,500	21,139	다양성
108	미스체인지	정초신	브런치메이트필름(주),(주)루믹스미디어	브릿지웍스 엔터테인먼트(주)	2013-09-05	청불	41	42,659,500	6,054	일반
109	개똥이	김병준	영화사 새삼	(주)마운틴픽처스	2013-09-05	청불	8	4,914,000	679	다양성
110	관상	한재림	(주)주피터필름,쇼박스썬미디어플렉스	쇼박스썬미디어플렉스	2013-09-11	15세	1,190	66,004,775,500	9,134,463	일반
111	우리 선희	홍상수	(주)영화제작전원사	(주)영화제작전원사,(주)영화사 조제	2013-09-12	청불	39	529,715,900	68,697	다양성
112	낭만파 남편의 편지	최위안	(주)리얼근시네마도	(주)퍼스트런	2013-09-12	청불	9	7,654,000	1,130	다양성
113	러시안 소설	신연식	(주) 루스이소니도스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주)	2013-09-19	15세	16	43,250,900	5,903	다양성
114	짓	한종훈	LEE FILM	(주)팝파트너스	2013-09-25	청불	159	162,540,500	23,052	다양성
115	아유레디?	허원	더패스오브라이프	(주)나인스엔터테인먼트	2013-09-26	12세	21	86,983,500	12,756	다양성
116	벌거숭이	박상훈	이닥픽처스	이닥픽처스	2013-09-26	청불	7	3,163,000	495	다양성
117	소원	이준익	(주)필름로맨텀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10-02	12세	641	18,529,474,100	2,711,003	일반
118	강철이	안권태	(주)시네마서비스,(주)더드림앤드픽처스,(주)팝콘필름	씨제이이엔엠(주)	2013-10-02	15세	707	8,572,266,462	1,209,350	일반
119	댄서김의 은밀한 교수법	신혜성	(주)베드픽처스	(주)베드픽처스	2013-10-02	청불	1	3,112,000	1,556	일반
120	러브썬	문인대,이정원,김두현	(주)스푸키번치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10-03	청불	4	3,775,000	805	일반
121	소원택시	박창진	(주)마부엔터테인먼트	(주)마부엔터테인먼트	2013-10-04	청불	2	971,000	283	일반
122	히어로	김봉한	(주)필마픽처스,(주)프리월컴퍼니	(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2013-10-08	전체	179	158,900,000	23,841	일반
123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장준환	나우필름(주),파인하우스필름(주),쇼박스썬미디어플렉스	쇼박스썬미디어플렉스	2013-10-09	청불	817	17,695,189,795	2,394,418	일반
124	롤러코스터	하정우	(주)판타지오피처스	씨제이이엔엠(주)	2013-10-17	15세	374	1,913,087,600	270,148	일반
125	밤의 여왕	김제영	(주)영화사이비전,(유)밤의여왕문화산업전문회사	(주)인벤트스톤	2013-10-17	15세	333	1,762,844,500	252,468	일반
126	바캉스	박선욱	(주)유비네트워크	(주)유비네트워크	2013-10-17	청불	21	14,674,000	5,051	일반
127	네버다이 버터플라이	장현상	피도 안마른 녀석들	(주)캘리버튼	2013-10-17	15세	16	10,846,000	1,547	다양성
128	비단꽃길	김정욱	(주)마운틴픽처스	(주)마운틴픽처스	2013-10-17	전체	8	5,820,500	896	다양성
129	공범	국동석	선샤인필름(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10-24	15세	611	12,333,094,882	1,766,283	일반
130	톱스타	박중훈	(주)세움영화사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10-24	15세	397	1,194,180,500	175,152	일반

순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스크린수	전국매출액 (2012년 매출 포함)	전국관객수 (2012년 관객 포함)	구분
131	배우는 배우다	신연식	(주)루스이소니도스, 김기덕 필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10-24	청불	297	810,923,000	111,909	일반
132	어떤 시선	박정범, 신아가, 이상철, 민용근	국가인권위원회	(주)영화사 진진	2013-10-24	12세	28	203,801,800	31,014	다양성
133	코알라	김주환	어뮤즈	어뮤즈(주)옛나인필름	2013-10-24	15세	65	47,015,000	6,287	다양성
134	말하는 건축 시타홀	정재은	영화사 못	(주)미디어데이	2013-10-24	전체	31	41,505,800	5,619	다양성
135	사육-내안에 가둔 그녀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10-24	청불	5	2,220,000	440	일반
136	에덴	박영호	스마일픽처스	스마일픽처스	2013-10-24	청불	1	900,000	180	다양성
137	노브레싱	조용선	(주)영화사수작(주)팝콘에프엔엠(주)더샘컴퍼니	(주)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2013-10-30	15세	584	2,991,824,739	451,669	일반
138	응징자	신동엽	(주)엔브릭스	(주)인벤트스톤	2013-10-30	청불	305	1,388,412,500	192,347	일반
139	연애의 기술	이수성	LEE FILM(주)조이엔터테인먼트	(주)팝엔터테인먼트	2013-10-30	청불	64	64,882,000	8,913	일반
140	원 오브 어 카인드 3D : G-Dragon 2013 1ST WORLD TOUR	손석, 정치영	케이비에스미디어(주),(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10-31	전체	39	90,752,500	8,038	일반
141	맛있는 사랑공식-섹스	이세일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10-31	청불	5	8,000,000	5,460	일반
142	노라노	김성희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주)시네마달	2013-10-31	전체	25	29,373,000	4,320	다양성
143	녹색의자 2013 - 러브 컨셉츄얼리	박철수	씨네힐	(주)마운틴픽처스	2013-10-31	청불	4	2,280,000	366	다양성
144	동창생	박홍수	더랩프(주),(주)황금물고기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2013-11-06	15세	660	7,010,034,126	1,048,253	일반
145	붉은 가족	이주형	김기덕 필름	김기덕 필름	2013-11-06	15세	8	27,190,500	3,756	일반
146	소녀	최진성	(주)영화사꽃(주)뱅크스튜디오	씨제이이엔엠(주)	2013-11-07	청불	73	153,877,000	20,594	다양성
147	야관문: 욕망의 꽃	임경수	(주)에이트웍스	(주)마운틴픽처스	2013-11-07	청불	90	42,470,500	6,085	다양성
148	사랑해! 진영아	이성은	(주)인디스토리(주)어뮤즈엔터테인먼트	(주)인디스토리(주)인디블로그	2013-11-07	15세	79	34,675,000	4,936	다양성
149	무계	전규환	트리필름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11-07	청불	2	8,446,500	1,161	다양성
150	친구 2	곽경택	(주)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주)제이콘컴퍼니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013-11-14	청불	968	21,795,038,513	2,969,874	일반
151	더 파이브	정연식	(주)시네마서비스	씨제이이엔엠(주)	2013-11-14	청불	501	5,343,719,000	731,199	일반
152	블랙 가스펠	히즈엔티선교회	(주)스토리셋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11-14	전체	143	351,611,500	50,985	다양성
153	잉투기	엄태화	한국영화아카데미	CGV 무비콜라주	2013-11-14	15세	94	120,592,600	16,945	다양성
154	데드 앤드	윤여창	굿픽처스	(주)마노엔터테인먼트	2013-11-14	청불	1	214,000	42	다양성
155	결혼전야	홍지영	(주)수필름	씨너스엔터테인먼트(주)	2013-11-21	15세	524	8,433,997,719	1,212,814	일반
156	사이비	연상호	주식회사 다다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11-21	청불	76	162,722,300	21,864	다양성
157	완전 소중한 사랑	김진민	(주)엘로우래빗(사)문화예술사회공헌 네트워크	(주)마운틴픽처스	2013-11-21	12세	66	129,614,500	20,303	일반
158	전망좋은하우스-관음적욕망	진달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11-21	청불	4	3,710,000	5,390	일반
159	소셜, 영화와 만나다	이상우, 박진성, 박진석, 이진우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2013-11-21	청불	5	8,965,000	1,327	다양성
160	청춘정담	문인수	디마엔터테인먼트	디마엔터테인먼트	2013-11-21	15세	6	3,176,500	484	다양성
161	롤플레이2 : 동침	이광호	골든타이드픽처스(주)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11-21	청불	2	1,400,000	330	일반
162	열한시	김현석	(주)파레토웍스, 씨제이이엔엠(주)	씨제이이엔엠(주)	2013-11-28	15세	512	6,097,185,000	870,702	일반
163	창수	이덕희	영화사아람(주),(주)마이너스필름	(주)마인스엔터테인먼트(주)박수엔터테인먼트	2013-11-28	청불	415	3,146,117,000	429,083	일반
164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이호재	Surplus	CGV 무비콜라주	2013-11-28	12세	31	154,164,500	22,149	다양성
165	안녕! 오케스트라	이철하	(주)MBC(주)꿈꾸는오아시스, 센미디어	(주)영화사 진진	2013-11-28	전체	49	87,970,000	13,998	다양성
166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2	최위안	필름라인	(주)팝파트너스	2013-11-28	청불	20	10,500,000	5,100	일반
167	뷰티풀 차일드	이성수	(주)피쉬트리 & STARTREE ENTERTAINMENT LTD	(주)마운틴픽처스	2013-11-28	전체	6	4,478,000	674	다양성
168	고양이 소녀	최경진	시작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11-28	청불	1	8,000	1	일반
169	화려한 외출	고경아	(주)레몬트리픽처스	(주)영화사폴	2013-12-05	청불	20	13,547,000	5,067	일반

순번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등급	전국스크린수	전국매출액 (2012년 매출 포함)	전국관객수 (2012년 관객 포함)	구분
170	베일	정창현	YK 필름	(주)엑티브스엔터테인먼트	2013-12-05	청불	3	12,000	2	다양성
171	집으로 가는 길	방은진	씨제이이엔엠(주),(주)다세포클럽	씨제이이엔엠(주)	2013-12-11	15세	740	12,373,820,745	1,763,219	일반
172	비밀의 화방	진달래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12-12	청불	5	4,130,000	5,530	일반
173	그 강아지 그 고양이	민병우	웃음을 주는 영화,조이월드앤다이버시티	씨제이이엔엠(주)	2013-12-12	12세	33	31,283,500	4,146	다양성
174	풍경	장률	룰필름(주)꿈길제작소	(주)인디스토리	2013-12-12	전체	14	11,453,600	1,700	다양성
175	번호인	양우석	위더스필름(주)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013-12-18	15세	923	40,952,697,500	5,686,919	일반
176	캐치미	이현종	(주)소넷엔터테인먼트,(주)심엔터테인먼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3-12-18	12세	517	3,293,065,500	480,408	일반
177	시바, 인생을 던져	이성규		(주)인디플러그	2013-12-19	15세	5	20,760,400	2,685	다양성
178	미녀전쟁	임진승	골든타이드픽처스(주)	골든타이드픽처스(주)	2013-12-19	청불	4	2,905,000	631	일반
179	용의자	원신연	(주)그린피쉬,쇼박스㈜미디어플렉스	쇼박스㈜미디어플렉스	2013-12-24	15세	807	15,629,656,500	2,176,771	일반
180	거짓말 색스가 좋아2	진달래		(주)케이알씨지	2013-12-24	청불	5	2,900,000	4,470	일반
181	청아-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재수		(주)마노엔터테인먼트	2013-12-26	12세	3	11,505,000	3,305	다양성
182	그녀가 부른다	박은형	(주)아피아스튜디오	(주)미디어데이	2013-12-26	15세	32	12,535,000	2,150	다양성
183	몽정애-꿈 속의 여인	이영화	(주)케이알씨지	(주)케이알씨지	2013-12-31	청불	1	40,000	10	일반
시사1	플랜맨	성시흠	주식회사 영화사일취월장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14-01-09	15세	0	19,305,000	3,441	일반
시사2	한 번도 안 해본 여자	안철호	(주)무비포지	(주)팝엔터테인먼트	2014-01-16	청불	0	1,315,000	263	일반
시사3	만찬	김동현	김동현필름	(주)인디스토리	2014-01-23	15세	0	422,000	71	다양성
시사4	마이 플레이스	박문칠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팀 컴퍼니에스에스(주)	2014-01-30	전체	0	1,012,000	190	다양성
시사5	또 하나의 약속	김태윤	(주)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주)에이트볼픽처스	OAL	2014-02-06	12세	0	4,371,000	653	일반